그림책

벗과 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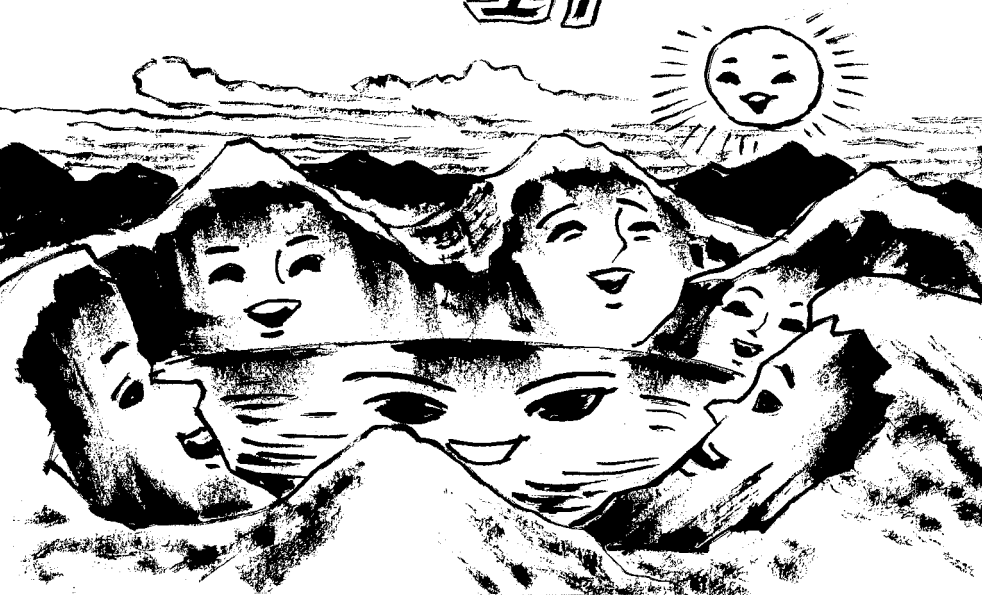
글 문영철
그림 강상준, 권영훈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차 례

1. 여섯산봉우리와 호수 ······ (4)
2. 제 눈을 찌른 꿀꿀이 ······ (8)
3. 쑥대끝의 민충이 ······ (13)
4. 스승없는 민충이 ······ (18)
5. 가을에 나타난 민충이 ······ (21)
6. 집이 가벼워진 조화 ······ (26)
7. 허수아비와 잠자리 ······ (29)
8. 조약돌과 시내물 ······ (32)
9. 하늘로 날아난 한뭈 ······ (35)
10 가시에 찔린 애기사슴 ······ (38)
11. 얼음폭포 ······ (41)
12. 부리뽑힌 참새 ······ (44)
13. 아침의 값 ······ (48)
14. 벗과 디딤돌 ······ (52)
15. 두 《친구》의 우정 ······ (55)
16. 새끼고양이의 꾀 ······ (58)
17. 바보맹꽁이 ······ (61)
18. 눈감아준 맹꽁이 ······ (63)
19. 남의 욕까지 먹은 맹꽁아 ······ (66)
20. 물소리를 낸 승냥이 ······ (69)

21. 버릇없는 망아지 …… (71)
22. 장끼와 수닭 …… (75)
23. 말거미의 그네줄 …… (78)
24. 꼬리없는 여우 …… (80)
25. 큰돈과 거스름돈 …… (84)
26. 돈벼락을 맞은 장끼 …… (89)
27. 모자를 만드는 승냥이 …… (92)
28. 《청렴》한 사마귀 …… (96)
29. 《착한》 여우 …… (100)
30. 하늘이 준 공짜 …… (104)
31. 충고를 주지 않은탓에 …… (108)
32. 승냥이의 례장감 …… (112)
33. 물에 적신 편지 …… (116)
34. 노루맛을 본 호랑이 …… (120)
35. 틀만 차리던 허수아비 …… (124)
36. 쌍그네 뛰던 두루미 …… (127)
37. 호랑이와 시라소니 …… (132)
38. 제집 담장을 뚫게 한 꿀꿀이 …… (136)
39. 긴 목과 짧은 목 …… (142)
40. 달과 승냥이 …… (146)
41. 으름장을 놓는 늑대 …… (151)

여섯산봉우리와 호수

아아한 여섯산봉우리가 빙 둘러싼 산중 한가운데 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아침해가 뜨면 여섯산봉우리들은 저마다 호수를 들여다보며 제 모습을 단장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누이야! 맑고맑은 누이의 모습은 우리들의 더없는 기쁨이고 거울이란다.》

오빠산봉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호수는 아침해빛에 수집어하며 더 수정같이 맑은 물결로 산봉우리들을 비쳐주군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례년에 없는 폭풍과 폭우로 여섯산봉우리들은 그만에야 흙사태와 돌사태를 냈습니다.

흙탕물과 크고작은 바위들이 사정없이 호수로 쓸어들었던것입니다.

그처럼 맑고맑던 호수는 하루밤사이에 제 모습을 잃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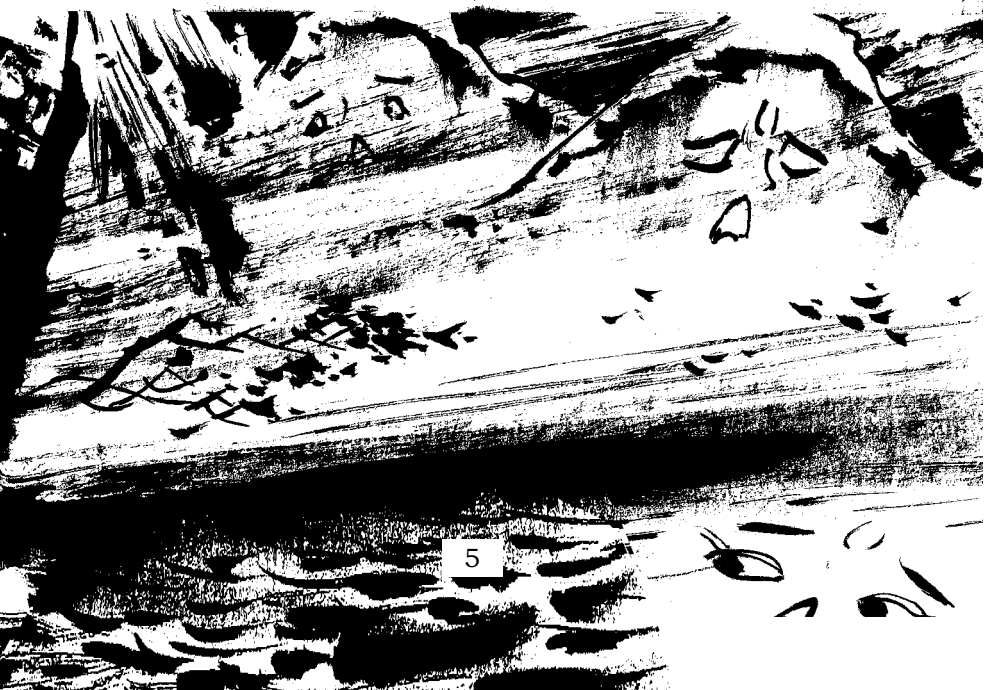
(아이참, 속상해! 이제 날이 밝으면 오빠산봉우리들이 자기의 모습을 비쳐보겠는데 흙탕물이 됐으니 어쩌면 좋아?)

호수는 안타까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날이 밝아도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흙앙금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은 호수누이가 어떻게 된거야? 날이 다 밝았는데도 안개이불을 걷지 않으니…》

《그러게… 어디 아픈가?》

오빠산봉우리들은 서로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이야,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게 아니니?》

여섯산봉우리가 이렇게 묻자 호수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수는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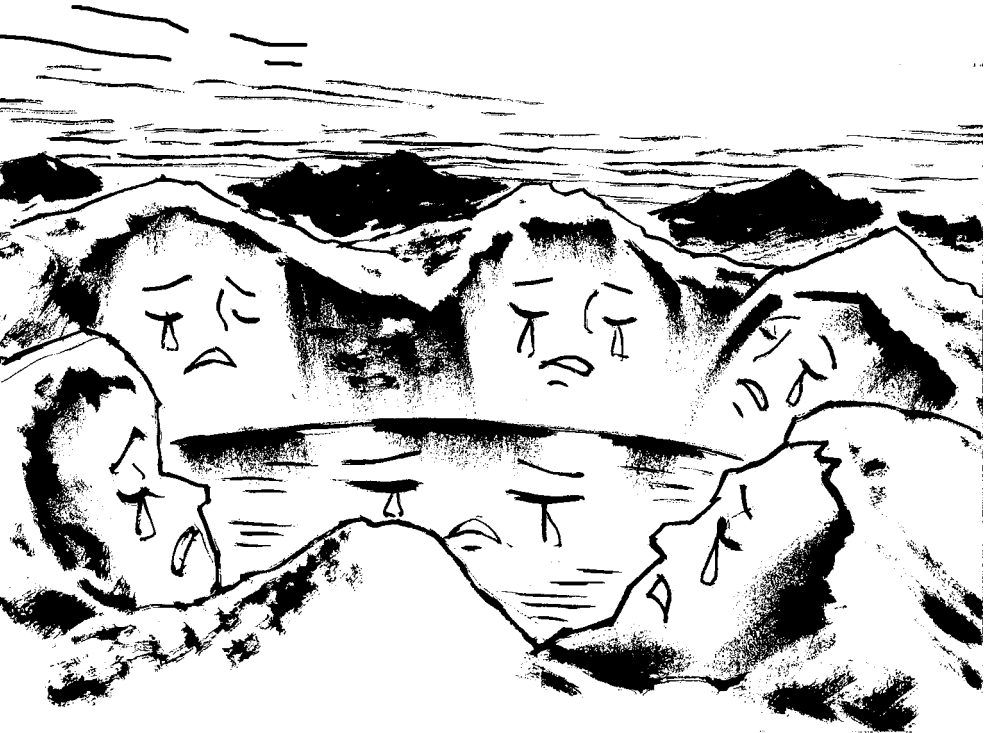
《흥, 우리가 추어주니까 교만해졌구나.》

《이젠 우리따윈 보기 싫다는건가?》

드디여 여섯산봉우리들은 볼부은 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울뚝하는 성미들을 참지 못하여 나무숲들로 바람을 일구어 호수가 쓰고있는 안개이불을 날려보냈습니다.

순간 뿌잇한 물결을 일으키며 호수는 애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내 인츰 맑은 물결로 오빠들의 모습을 비쳐드릴게요.》

여섯산봉우리들은 그만 눈굽이 뜨거워나고 목들이 꽉 메여올랐습니다.

글쎄 자기들이 낸 사태로 흐려진 호수가 그 괴로움을 혼자 이겨내며 오히려 오빠들에게 미안해하니 아무리 하늘을 떠이고있는 산봉우리들이라 한들 어깨를 들먹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누이야! 우린 누이의 맑은 물결에 제 모습들만 비쳐보려고 했지 누이의 마음속에 더 맑은 거울이 간직되여있는줄은 몰랐구나. 이 오빠들은 앞으로 숲을 더잘 가꾸어 누이한테 한방울의 흙탕물도 흘러들지 않게 할테야.》

여섯산봉우리의 이 말은 오래오래 호수가에 메아리쳤습니다.

어느 겨울이였습니다.

새해농사차비를 하느라 벌마을은 바빴습니다.

《꿀꿀이서방, 자넨 거름을 밭에 안 내가나? 우린 벌써 다 내갔는데…》

이웃집 멍멍이의 말에 꿀꿀이는 코나발만 불었습니다.

《흥, 무던히도 보채는군.》

할수없이 후들후들한 몸집을 뚱기적거리며 거름무지가 있는 길가로 나온 꿀꿀이는 우뚝우뚝 솟은 거름더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말과 소는 큰 수레로 길가에 무져놓은 거름더미들을 밭으로 날라가고있었습니다.

(이크, 저만큼 거름을 져나르자면 허리가 다 부러지겠군.)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던 꿀꿀이는 길가에 쓸어모아둔 눈무지를 보고 벌씬 웃었습니다.

《그렇지, 죽을수가 나면 살수도 난다더니…》

무릎을 철썩 치고난 꿀꿀이는 부리나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되는 거름을 지고 나와 눈무지우에 씌워놓았습니다.

(까짓거, 거름을 바친 다음에야 거름더미가 작아지건 커지건 내 상관할바가 아니지.)

우뚝 솟아난 자기의 거름더미를 흡족하게 바라보고난 꿀꿀이는 사방을 휘둘러보았습니다.

거름을 받는 염소할아버지를 찾는것이였습니다.

《야, 이거 빨리 바쳐야겠는데…》

이때 개울쪽에서 동생 꼴꼴이가 오는것이 보였습니다.

《얘 꼴꼴아, 너 얼른 가서 염소할아버지를 좀 찾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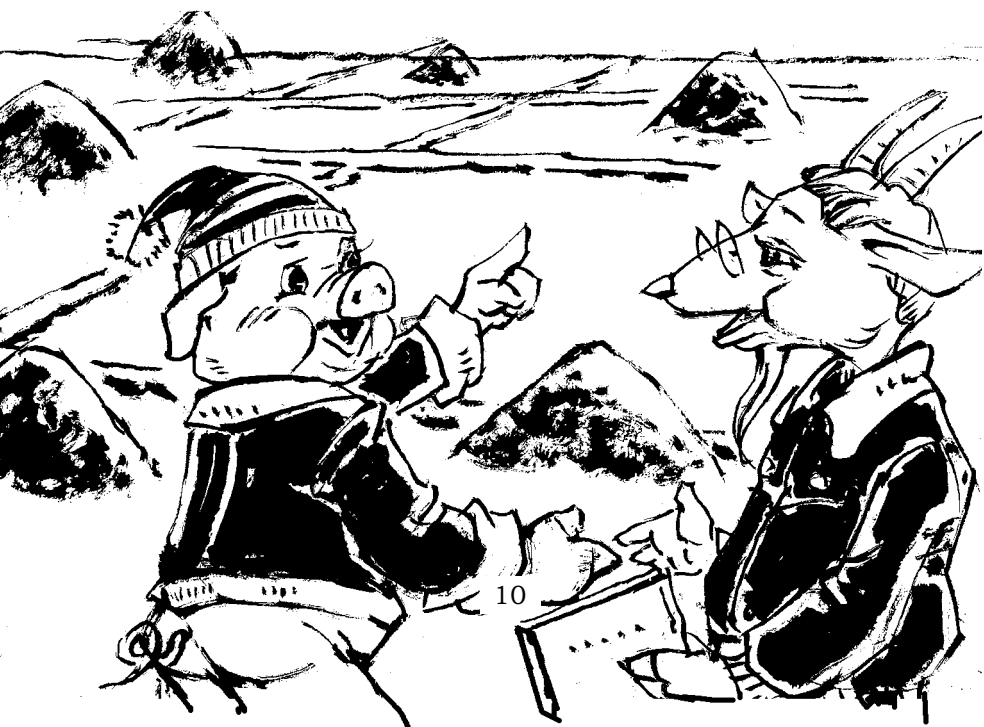
꿀꿀이의 말에 동생 꼴꼴이는 도리질을 했습니다.

《싫어. 난 썰매를 타다가 발을 적셨어. 발이 시려 죽겠는데…》

《에이참, 그럼 잠간만 이 거름더미옆에 있어. 내가 염소할아버지를 찾아올게.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염소할아버지가 오면 이 거름더미가 우리거라고 해. 알겠니?》

동생의 대답도 채 듣지 않고 염소할아버지를 찾아떠났던 꿀꿀이는 샘골에 가서야 겨우 염소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염소할아버지, 어서 가자요. 나도 거름을 다 내갔어요.》

꿀꿀이의 말에 염소할아버지는 의아해졌습니다. 글쎄

늘 건달을 부리던 꿀꿀이가 거름을 다 내갔다고 하면서 찾아오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가보세.》

꿀꿀이를 따라 큰길가로 나온 염소할아버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뚝하다던 꿀꿀이의 거름더미가 땅속으로 잦아들었는지 기껏해서 둬삼태기 될가말가하였습니다.

《엉?》

꿀꿀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그옆에서 강냥짚을 가져다가 불을 활활 피우며 발을 녹이고있는 동생 꼴꼴이를 쥐여박으며 소리쳤습니다.

《넌 눈이 멀었니?》

《형, 왜 그래?》

동생 꼴꼴이는 영문도 모르고 매를 맞자 울상이 되여 대들었습니다.

《넌 불을 놓을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거름더미옆에서 불을 놓는가 말이다.》

꿀꿀이는 염소할아버지앞에서 딱 까밝혀 말할수가 없어 우웅대기만 하였습니다.

대뜸 모든것을 알아차린 염소할아버지는 턱수염을 내리쓸며 껄껄 웃었습니다.

《눈이 먼건 동생이 아니라 임잘세. 그렇게 남의 눈이나 속여 농사를 지어서야 어떻게 풍작을 이루겠나?

남을 속이는것은 자기를 속이는것이고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는것이라는걸 명심하게나.》

그 말에 꿀꿀이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였습니다.

들마을 곤충들 모두 달라붙어
동네 한복판에 낟알창고 지었네
그러나 건달뱅이 민충이
뒤늦게 나타나 겨우 해놓은 일이란
창고문손잡이 해달은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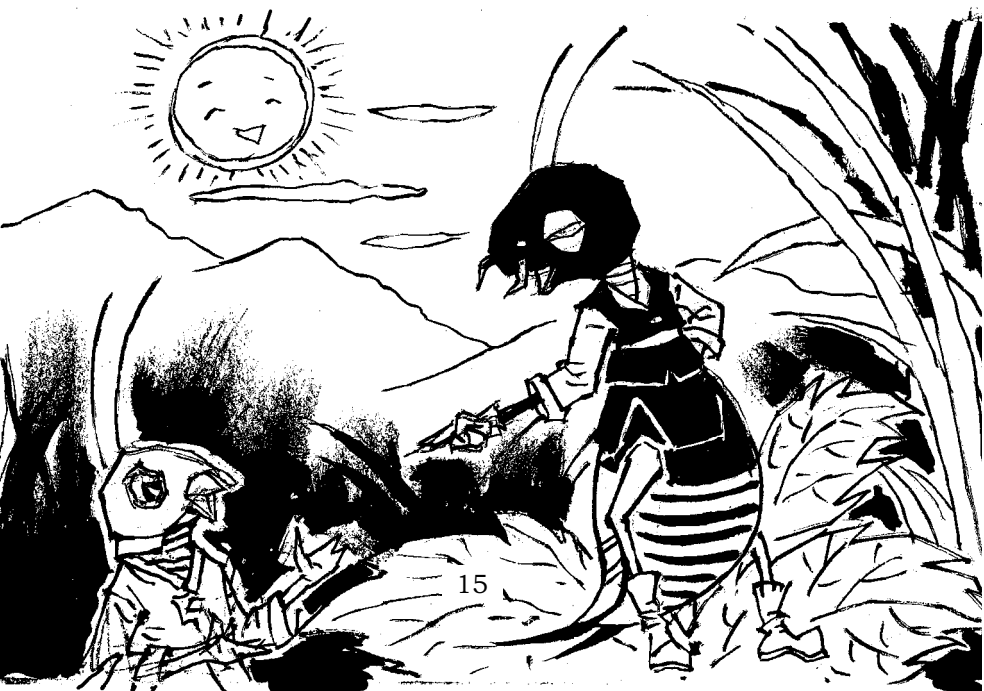
《거참, 그래도 민충이가
  창고문손잡이는 잘해달았군》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얼핏
한마디 하자
민충이 그만에야 붕 떴네

제일 높은 쑥대끝에 올라
온몸을 흔들며

누구에게라없이 하는 말
《차, 일났군. 이제 저저마다
  문손잡이를 달 일이 생기면
  이 민충이를 찾을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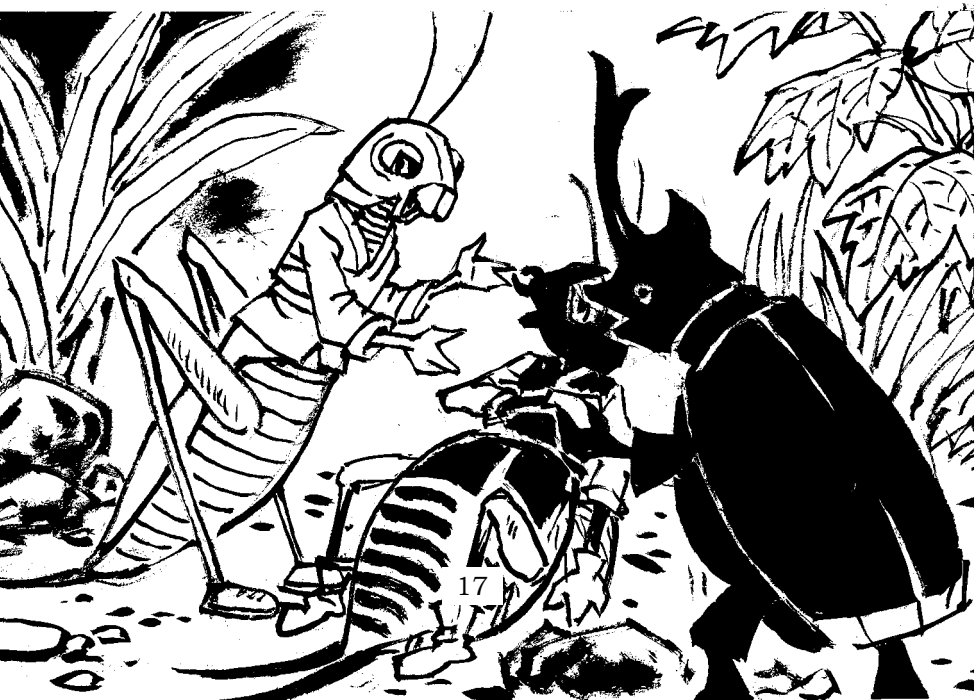
그것보고 풍뎅이 어이없이 웃고서
점잖게 충고했네
《여보게 민충이!
  그러다가 떨어지면 상하겠네
  어서 내려오라구》
그 말에 민충이
풍뎅이를 마뜩지 않게 내려다보며
《자네 내가 칭찬받는것이
  그렇게 시샘이 나나?》
이렇게 쏴주고는 더 턱을 쳐들었네

이번엔 소꿉친구 베짱이
바쁜 길 멈추고 말해주었네
《민충이 그렇게 쑥대끝에서
  흔들대다간
  새들의 먹이가 되기 쉽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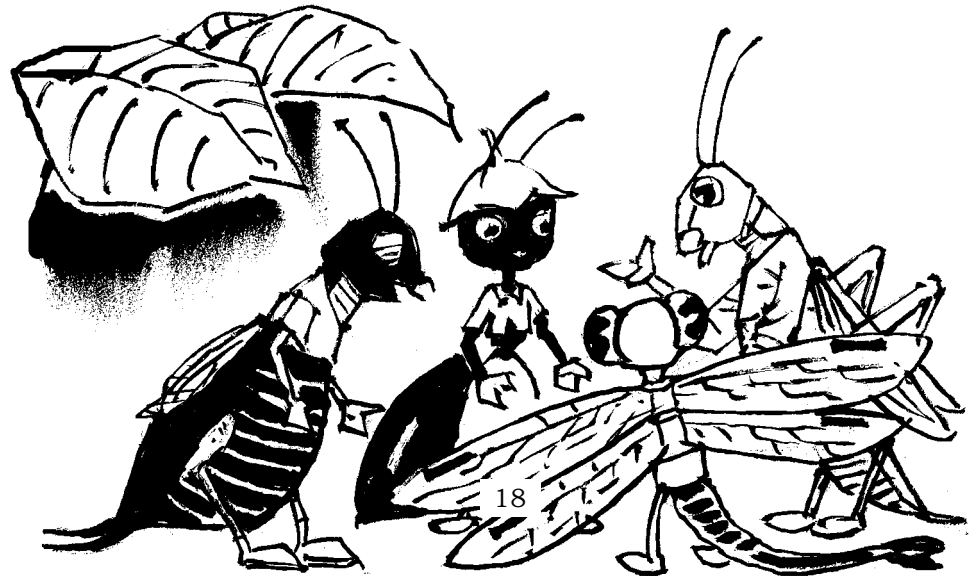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에도 민충이
어깨를 으쓱이고나서
《자네 누구더라?…
  온 마을이 쥐여볼 창고문손잡이를 단
  나를 홀시하다니
  좀 어렵게 대하라구》
그리고 민충이 더 우쭐해
쑥대끝에서 흔들대는데

아뿔사 쑥대끝이 부러지며
민충이 날개를 펼새도 없이
땅바닥에 곤두박혔네

아이고 데이고! 민충이 비명소리에
풍뎅이와 베짱이 가던 길 되돌아와
있는 정성 다하여 민충이를 구원하자
간신히 정신차린 민충이
뜻밖에도 하는 부탁ㅡ
《내가 쑥대끝에서 떨어져
　자네들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
　어디 가서든 절대로 말하지 말아주게
　이러나저러나 지금 한껏 오른
　내 위신상문제니까》

처음부터 창고짓는 일에 참가하고도
언제한번 내색한적 없는
풍뎅이와 베짱이
민충이가 노는 꼴이 너무도 가소로와
쓴입을 다시고 하는 대답

《걱정말어 우린 네가 창고
문손잡이나 달고 쑥대끝에 올라가
우쭐거린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보다 큰 일을 하고
더 높은 나무꼭대기에
올라갔더라면 어쩔번 했니?
틀림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새똥신세가 됐지》

풀메뚜기와 깜장개미
그리고 고추잠자리와 민충이가
한자리에 모여 말보따리를 풀던중
어느덧 스승자랑 펼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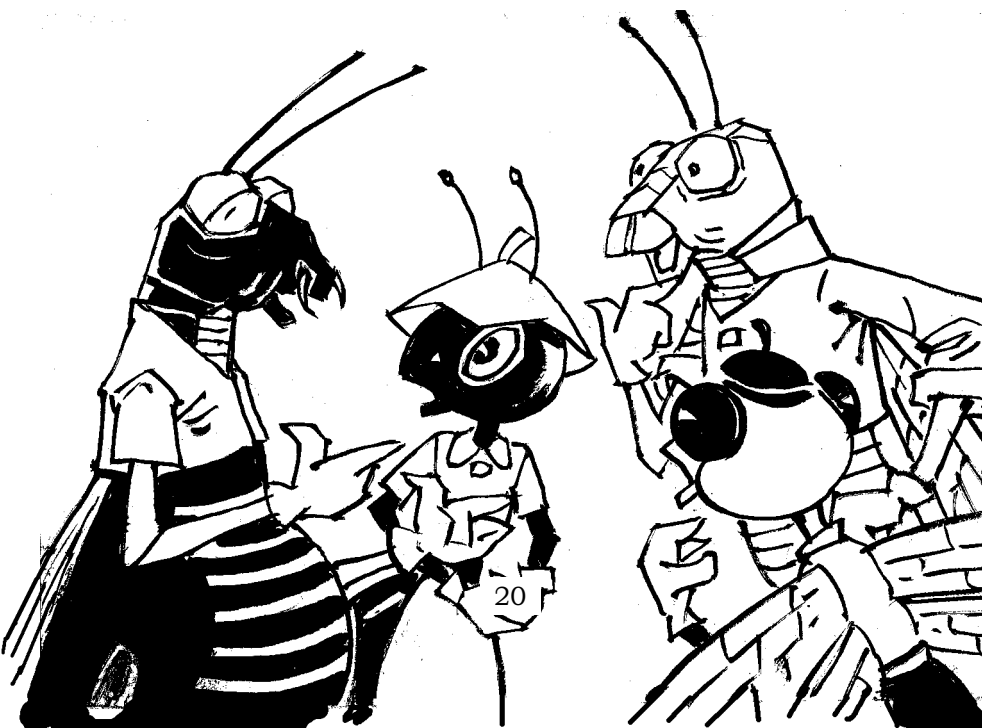
《내 스승은 사마귀선생님이야!
어찌나 정열적으로 배워주던지
내가 이처럼 학자가 된것도
다 사마귀선생님덕분이야》

풀메뚜기의 말에 이어
이번엔 깜장개미의 말

《난 돌드레감독을 한시도 잊을수 없어
내가 이름난 력기선수가 된것은
돌드레감독의 꾸준한 훈련지도가
있었기때문이야》

고추잠자리도 지지 않고 말했네
《내가 온 마을의 사랑을 받는 원예사가 된것은
꽃나비선생님이 자기 지식을
남김없이 나한테 배워주었기때문이야》

그러자 이번엔 민충이차례
《난 스승이 따로 없어
하지만 론문은 제일 많이 썼어

일부 학자들은
  기분만 잘 맞춰주면 제 속까지
  다 뽑아주거든》

똥똥한 배 내밀며
장한듯이 뇌까리는 민충이의 말에
모여앉았던 친구들 삽시에 얼굴 뜨끈―
한참만에 풀메뚜기 뾰족이마 젖히고
일동을 대변하여 하는 말
《그러니 민충이의 스승은
  아첨이로구나
  헌데 아첨의 제자들은
  낯가죽이 좀 두텁지
  남의 열매를 따먹고도 부끄러워할줄 모르고…》

풀마을 곤충들
씨뿌리기계절이 오자
너도나도 바빴네
땀흘려 일했네

독초뿌리 뽑아내고 새땅을 일구어
단즙많고 영양가높은 풀씨앗 뿌리느라
하지만 밤빛조끼 걸쳐입고
짧은 다리 아장아장
제집 뜨락만 오고가던 민충이
가끔 일터쪽을 보고는
목을 움츠렸네
(저렇게 일하다간 밑천 놓겠다)

어느날 방구퉁이 찾아왔네
《자넨 그렇게 담장안에서
마을농사를 강건너 불보듯 할셈인가
자기도 마을의 주인이라는걸
명심하라구》

《원, 내가 주인은 무슨 주인
힘센 집게벌레랑 사마귀가 있는데…》
민충이 마침내 헛기침을 콜록콜록
방구퉁이 할수없이 낯 찡그리고 돌아가네

례년에 없는 왕가물로
풀잎들 초들초들 마를 때도
남들이야 물초롱을 지고
달리겠으면 달리고

서늘한 방안에서 낮잠자던
민충이

《여보게 자넨 잠농사만 지으려나?
그렇게 마을농사에 외면하고서야
누가 마을의 주인구실을 한다고 하겠나?》

방아깨비 꾸짖을 때
민충이 뻑 맞섰네
《거 자꾸 주인주인하지 말게
나도 주인구실을 할 때 가선 하지 않으리
괜히 남의 선잠만 깨우면서…》

민충이 다시 방바닥에 드러눕자
방아깨비 주먹만 부르쥐다가 말았네

어느덧 날이 흘러
맛있는 열매 거둬들일 때
민충이 이때라 제먼저 풀밭에 나가
팔소매 걷어붙이며 큰소리로 말했네
《우린 다같이 마을의 주인들이지
　집게벌레랑 사마귀랑 꼭같은…》

하지만 열매따서 분배하는 날
모두모두 수레가득 분배몫이
넘쳐나는데
민충이한테 차례진 몫은
자루밑창을 가리울가말가…

《아니 난 왜 분배몫이
　요렇게 작아
　나도 꼭같은 풀마을의 주인이 아닌가?》
민충이 발까지 구르며 항의하자
방구퉁이 방아깨비 한마디씩 하는 말
《봄내 여름내
　밭머리에 보이지 않던 주인이
　가을에 갑자기 나왔으니
　땅도 그 주인이 낯선 모양이지》

《떳떳한 가을의 주인되자면
　씨뿌리고 가꿀 때부터
　땀흘리는 주인이
　먼저 돼야 하는거야》

세상리치에 막히는것이 없다고 우쭐대는 토끼가 다람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람쥐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싶어서 토끼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했던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강의를 해달란 말이지. 거야 뭐 어려울게 없지. 오늘은 내 몸값이 부쩍 오르는걸… 가만 돌아올적에 수고했다고 한짐 잔뜩 지고 가라고 할수도 있어. 그렇다고 빈자루를 들고갈수야 없지.)

토끼는 생각끝에 큼직한 자루에다 돌배를 한가득 넣어서 짊어지고 다람쥐를 찾아갔습니다.

다람쥐네 집은 땅굴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람쥐네 집으로 들어갈수록 토끼가 지고 가는 돌배자루가 가벼워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야? 자루에 구멍이 뚫렸나?》

토끼는 돌배자루를 내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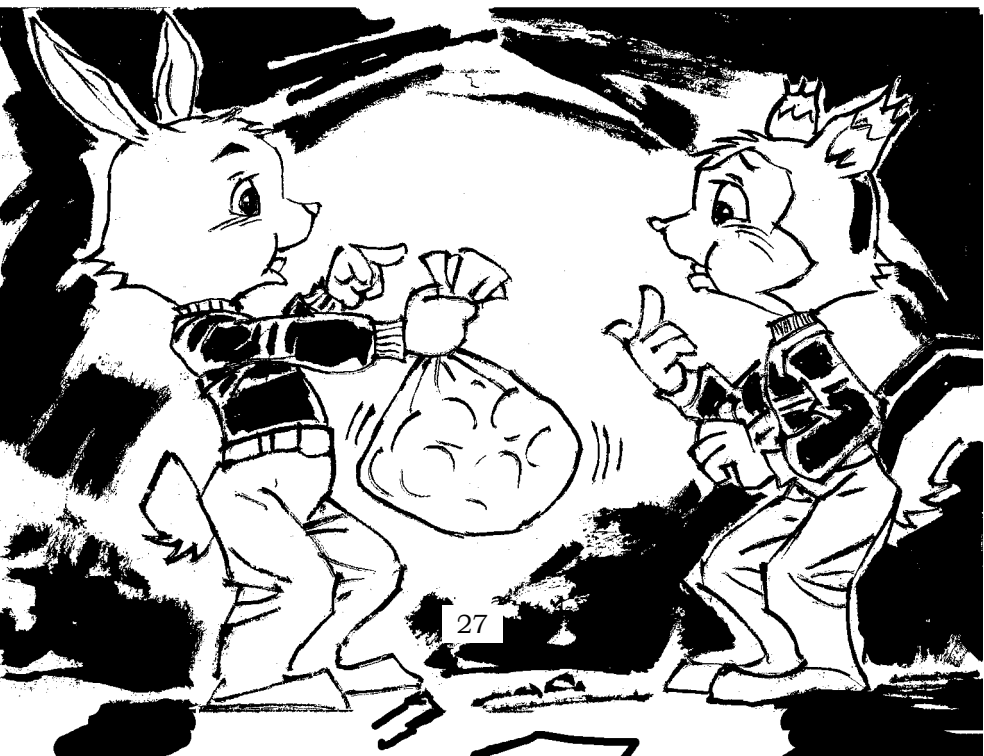
그러나 뚫어진 구멍은 없었습니다.

이때 토끼를 마중하러 나오던 다람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기다리던 참인데 마침 오는구만. 그런데 왜 그러고 섰나요? 어서 들어오지 않구.》

《글쎄 바깥에서는 이 돌배자루를 겨우 지고왔는데 굴속에 들어오니 홀가분해지는게 어디 흘리지 않았나해서…》

토끼의 말을 들은 다람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세상리치에 밝다는 형님이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짐이 가벼워진다는건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집이 가벼워지다니?》

다람쥐의 말에 토끼는 처음 듣는 소리란듯 큰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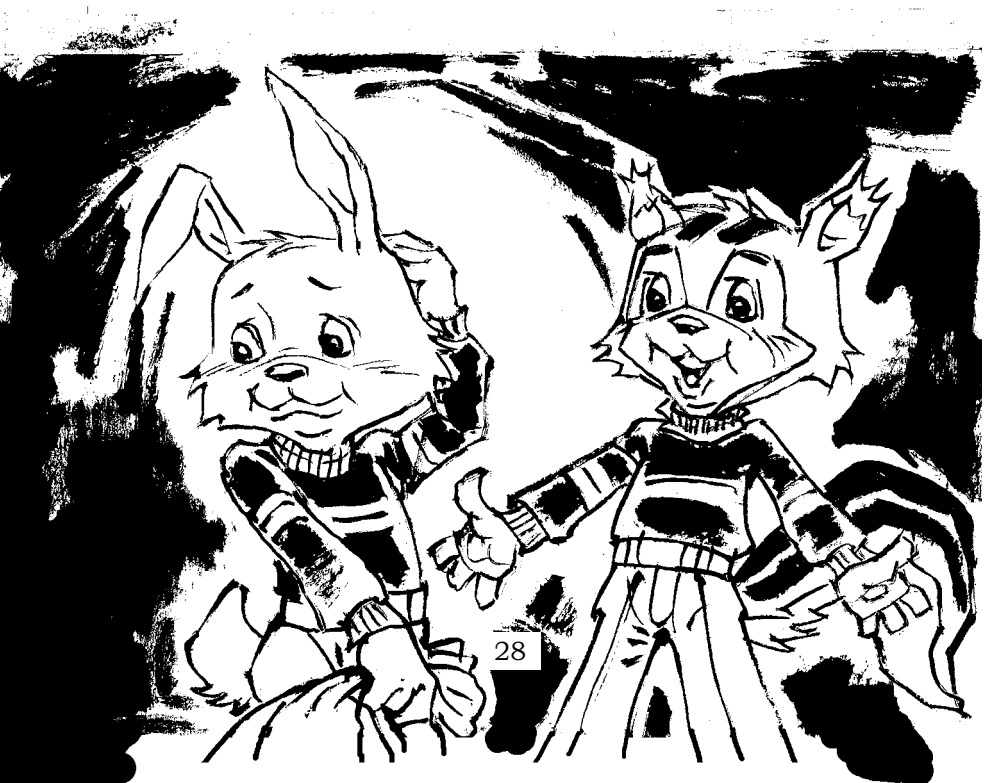
《모든 물체는 땅속깊이 들어갈수록 중력힘이 작아지니까 자루가 그만큼 가벼워질밖에요.》

그제야 토끼는 돌배자루가 가벼워진 까닭을 알게 되였습니다.

《정말 그렇지… 그런걸 난 또…》

토끼는 자기의 무식이 드러난것만 같아 어줍게 웃었습니다.

(그러니 뭘 좀 안다고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를 알면 남들은 열백을 안다고 생각해야 해.)

토끼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람쥐에게 돌배자루를 넘겨주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고말았습니다.

잠자리가 소낙비를 피하려고 어디론가 급히 날아가고있었습니다.

(빨리 개울건너에 있는 뽕나무밑의 내 초막으로 가야지.)

점점 더 굵어지는 비줄기를 뚫고 날아가던 잠자리는 누가 찾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리밭의 허수아비가 두팔을 쩍 벌리고 서서 잠자리를 부르는것이였습니다.

《얘, 내 모자밑에서 비를 그으렴.》

잠자리가 머뭇거리자 허수아비는 더 구슬렸습니다.

《얘, 뭘 망설일게 있니? 난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데.》

잠자리는 허수아비한테로 날아갔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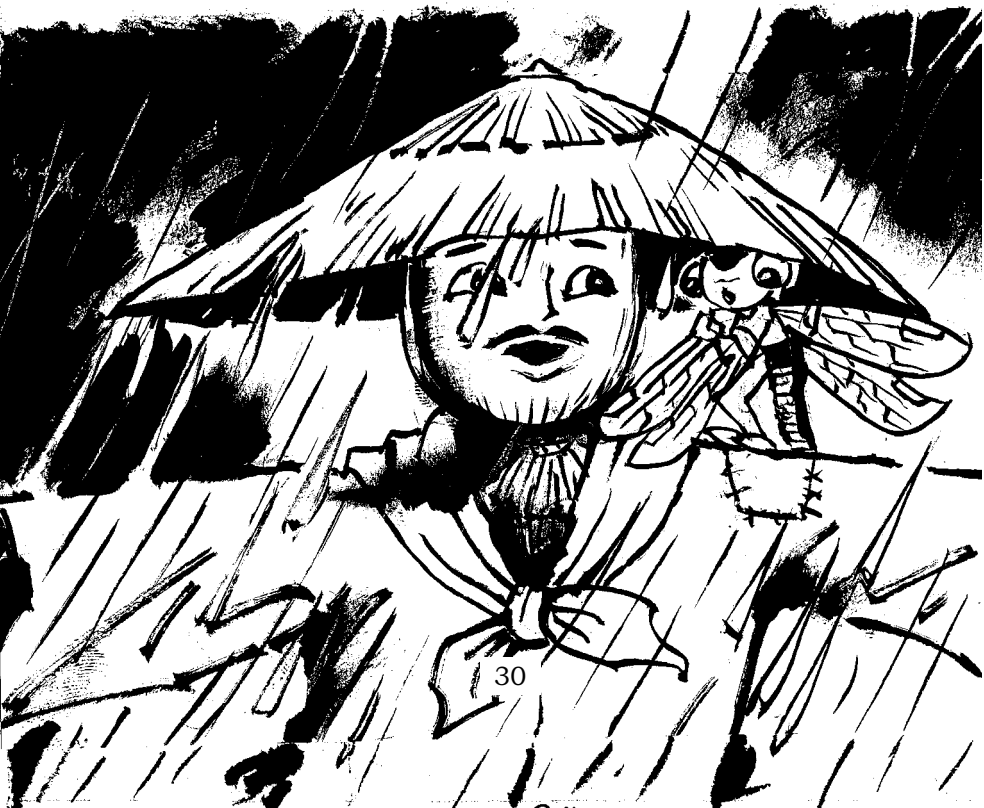
허수아비는 점잖게 인사를 받았지만 사실은 하루종일 홀로 서있는것이 갑갑하고 싫증이 나서 잠자리를 부른것이였습니다.

허수아비는 땅속에 박은 외다리를 흔들거리며 잠자리에게 제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더 억수로 쏟아지자 허수아비의 모자밑으로도 비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참, 야단났구나. 이럴줄 알았으면 힘들더라도 개울건너의 내 초막으로 가는건데…)

잠자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에 젖은 몸을 꼬부린채 오돌오돌 떨기만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휘청거리던 허수아비는 그만 물랑물랑해진 발이랑에 넘어지고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바람에 잠자리도 허수아비밑에 깔리였습니다.

(아, 남에게 의지하려다가 이 꼴이 됐구나…)

잠자리는 정신이 가물거리는 속에서 흙탕에 처박힌 자기의 처지를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어디선가 솔솔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 흐름을 멈추었던 시내물도 다시 밑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봄을 맞았다고 소리쳐야겠는데…》

시내물은 아직 얼음장밑에서 흐르고있는 자기를 버드나무와 봄꽃들이 못 알아볼가봐 등이 달았습니다.

얼음장이 다 풀릴무렵이면 버들가지도 파릇파릇 싹트고 봄꽃들도 활짝 피여나 또 시내물더러 잠꾸러기라고 불어댈것입니다.

《흥, 저희들은 양지쪽에 있고 난 음지쪽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기를 변명도 해봤지만 어쨌든 속마음은 편하질 않았습니다.

이때 물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내물님, 시내물님, 저를 모로 세워주세요. 온 겨울 한모양으로 누워있었더니 허리가 아파 그래요.》

시내물이 내려다보니 그것은 하얗고 둥글납작한 조약돌이였습니다.

《난 언제 너를 쳐들어줄 사이가 없어. 바쁘단 말이야. 봄소식을 남먼저 알려야 돼.》

시내물은 귀찮은듯 단마디로 잘라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약돌은 시내물에게 또다시 부탁했습니다.

《시내물님, 시내물님, 제발 부탁을 들어줘요. 그럼 저도 시내물님을 도와드릴수 있어요.》

이 소리에 시내물은 코방귀를 뀌였습니다.

《흥, 누굴 얼려보려구.》

그가 코방귀를 뀌는 바람에 물살이 소용돌이쳐 조약돌은 모로눕게 되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약돌은 시내물에게 몇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시내물은 인사받기가 뭣했습니다.

그런데 조약돌은 이렇게까지 말하는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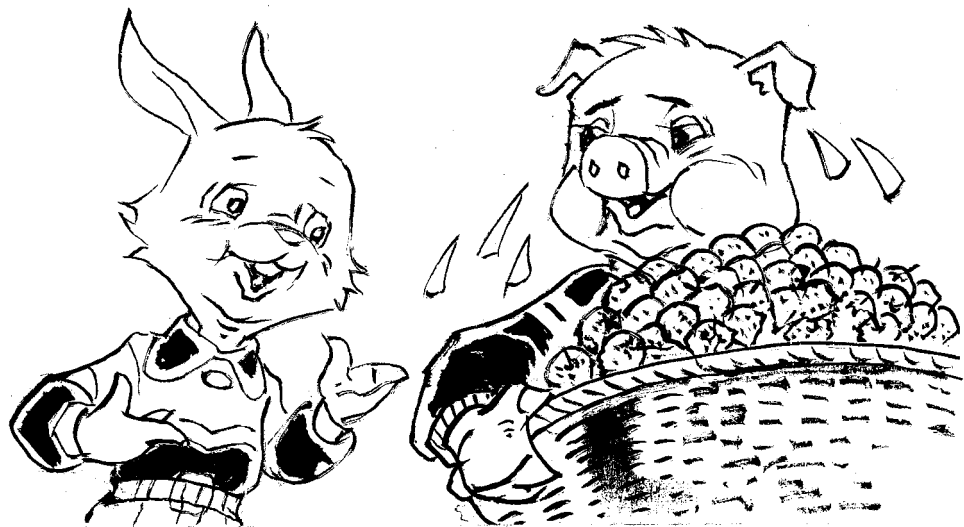
《시내물님, 시내물님, 저를 세게 부딪치며 흐르십시오. 그러면 물흐름소리가 얼음장을 뚫고나가 버드나무나 봄꽃들의 겨울잠을 깨울거예요.》

그의 말대로 시내물이 조약돌을 힘껏 부딪치며 흐르니 정말 물흐르는 소리가 요란히 울렸습니다.

그제서야 시내물은 조약돌을 힘껏 부딪치며 얼싸안았습니다.

《남의 기쁨속에 자기의 기쁨도 있음을 내 오늘에야 깨달았어요.》

시내물 흐르는 소리는 버드나무와 봄꽃들의 겨울잠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시내물소리가 요란히 들려 자기들이 겨울잠을 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지런한 토끼가 동산의 딸기밭에서 가꾼 딸기를 집집마다 한바구니씩 나누어주었습니다.

꿀꿀이는 토끼가 내미는 딸기바구니를 받아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매 집에 이만큼씩 주나?》

《예.》

토끼는 꿀꿀이가 묻는 말에 별생각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맏이네는 비록 한지붕을 쓰고살지만 딴살림을 하는 세대가 아닌가?》

《예?! 예－》

토끼는 인차 꿀꿀이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딸기 한바구니를 더 가져다주었습니다.

《헤헤…잘 먹겠네. 자네는 정말 눈치가 여간만 빠르지 않다니까.》

꿀꿀이는 토끼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토끼는 다시 꿀꿀이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나누어주나?》

꿀꿀이는 군침부터 삼키며 토끼를 반겨맞아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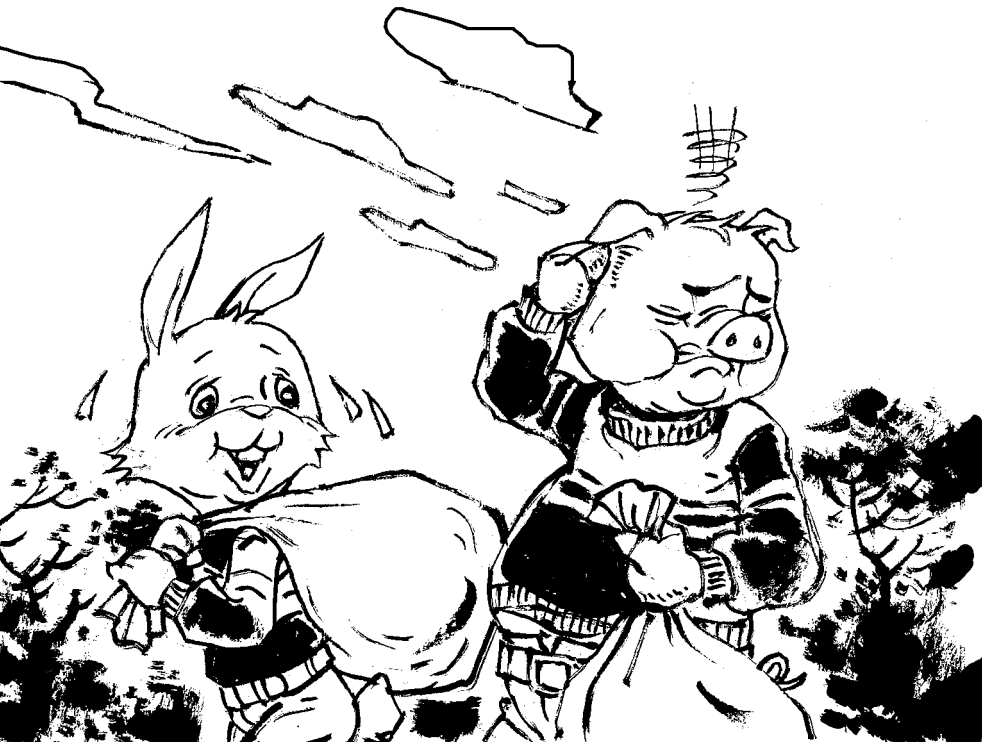
《호호…오늘은 동산의 줄당콩밭에 쓸 장대를 매 집에서 다섯대씩 내야겠어요.》

(그럼 우리 집은 열대?)

순간 꿀꿀이는 낯을 찡그리더니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우리 맏이네는 세간날 집을 짓겠다면서 요즘 집터를 보러 다니는중인데…》

《그래요? 그럼 다섯대만 내세요.》

토끼는 꿀꿀이의 심보가 괘씸하게 생각되였지만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토끼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줄당콩을 한자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린 두자루겠지?》

꿀꿀이의 능청스러운 물음에 토끼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맏이네가 아직 집터를 잡지 못했는가요?》

《글쎄말이야, 그녀석은 하늘에다 집을 지으려는지 밤낮없이 돌아만 다니지 않나.》

꿀꿀이의 말에 토끼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거 참 안됐구만요. 분배받을 때는 불어나고 일할 때는 줄어드는 그런 몫은 하늘에나 있겠는지… 하늘에 집을 지으면 알아보라고 하세요. 우리 동산에는 그런 몫이 없으니…》

가시에 찔린 애기사슴

어느날 산골짜기에 물마시러 내려왔던 애기사슴이 양지쪽 잔디밭에 앉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음지쪽 머루덩굴속에 웅크리고있던 늙어서 운신못하는 시라소니가 침을 질질 흘리며 애기사슴에게 소리쳤습니다.

《애기사슴아, 그 잔디밭은 위험하다. 바늘끝같은 풀잎들이 뾰족뾰족 돋은게 보기에도 얼마나 스산하냐. 어서 푹신한 가랑잎이 있는 이쪽에 와앉아라.》

그 말을 듣고 잔디밭에서 풀씨를 뜯고있던 새끼노루가 시라소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음흉한 놈아, 무엇이 어쩌고어째? 그럼 잔디밭이 날창밭이란 말이냐?》

《날창밭이구말구!》

시라소니도 목청을 돋구어 새끼노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는 애기사슴을 더 달콤한 말로 꼬였습니다.

《뭘 그리 재는거냐? 어서 이쪽으로 오지 않구. 여기에 말라붙은 머루송이도 있으니 어서와서 맛을 봐라.》

애기사슴은 머루송이가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음지쪽으로 깡충깡충 뛰여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앗!》 소리를 지르며 발을 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라소니가 가랑잎밑에 세워놓았던 왕가시에 채 굳지 않은 발쪽을 찔렸던것입니다.

애기사슴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황급히 양지쪽으로 건너왔습니다.

《히히…됐구나. 사슴의 피를 먹으면 백년은 살겠다.》

시라소니는 머루덩굴속에서 엉금엉금 기여나와 애기사슴이 흘린 피방울을 핥아먹으며 지껄였습니다.

애기사슴은 그제야 자기가 시라소니한테 속았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애기사슴이 잘못을 뉘우쳤을 때는 이미 피를 흘린 뒤였습니다.

새끼노루가 약초잎을 뜯어다 피흐르는 애기사슴의 발쪽에 붙여주며 따뜻이 일깨워주었습니다.

《애기사슴아, 달콤한 말에 귀기울이기 좋아하면 나쁜놈들한테 피해를 입기마련이란다. 그런 놈들일수록 달콤한 소리를 곧잘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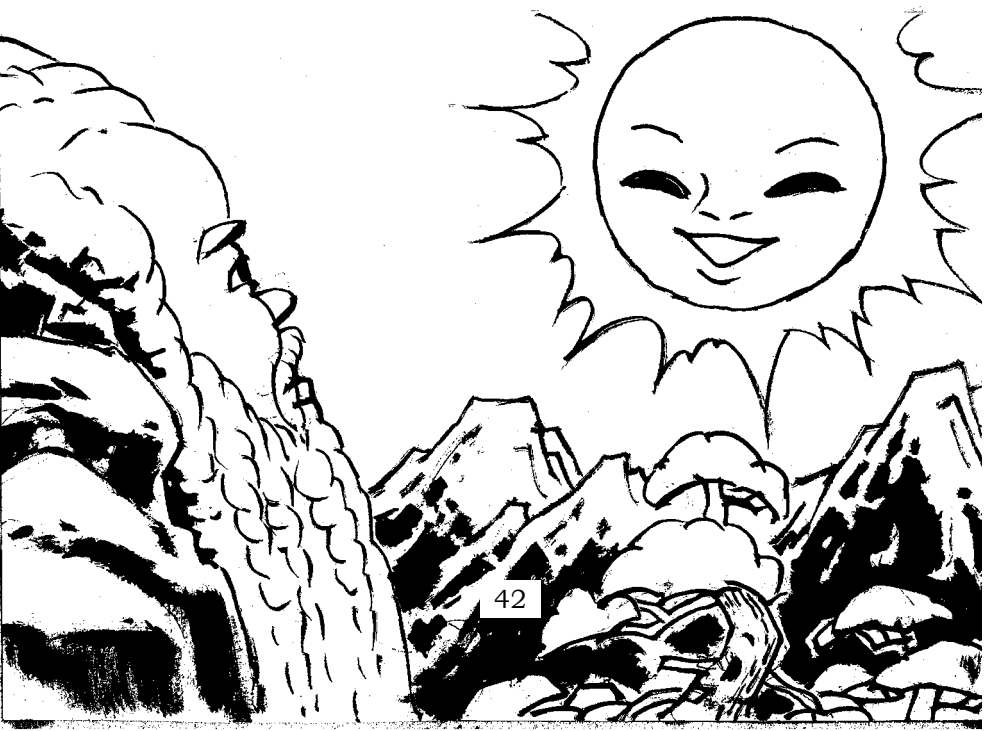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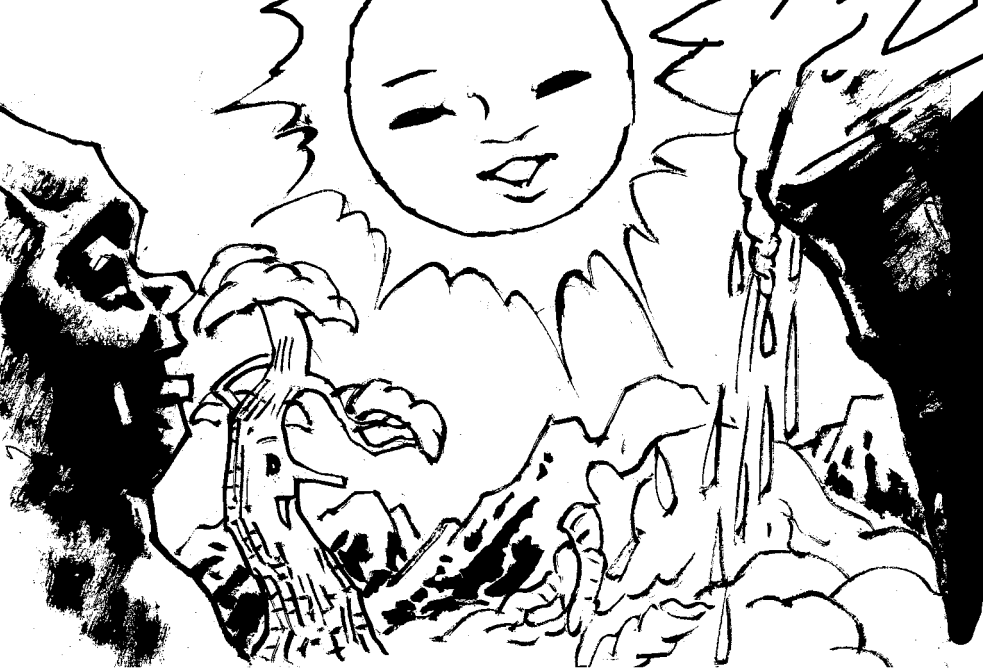
애기사슴은 새끼노루의 말을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넣었습니다.

어느 한 산속에 바위타고 흐르던 물
세상에 제일 황홀한 모습으로 나서고싶어
추운 겨울 오자 제꺽 얼음폭포되였네
은백색수정옷 떨쳐입고
아름드리고드름도 주렁주렁 드리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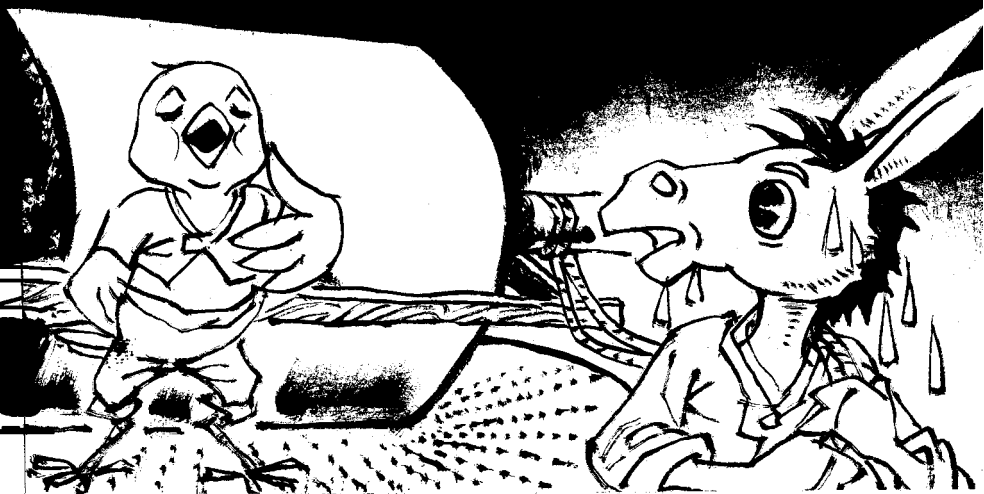
이제는 저이상 없다고 우쭐한 얼음폭포
곁에 선 소나무에게 말했네
《소나무야 여기에 화가가 오면
우리들중 누구를 그릴것 같니?》

소나무 쓴웃음을 지으며
말이 없었네
얼음폭포 이번엔
산중턱 쇠돌바위한테 말걸었네

《바위야 누가 여기 와서 노래를 짓는다면
　누구 노래를 지을것 같니?》

쇠돌바위도 어이없는듯
묵묵히 대답없었네
나날이 우쭐해진 얼음폭포
하늘중천 해님한테도 꺼림없이 말했네
《만물을 한눈에 굽어보는 해님
　해님은 소나무와 바위 나 셋중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누구를 찍어서
　세상에 남기겠나요?》
해님 너그럽게 웃으며 대답했네
《사진찍는게 소원이라면
　너희들모두를 함께 찍어주지》

해님 그들의 모습 사진에 담으려고
뜨겁고도 눈부신 빛을 모아
얼음폭포와 소나무 바위에 쏟았네
그러자 얼음폭포 눈물 졸졸 흘리더니
순간에 왈칵 무너져버렸네

해님 얼음무지가 되여버린
얼음폭포 내려다보며 말했네
《허허, 이제보니
　사진 한장 못 남길것이 떠들어댔군
　기둥감이 될 소나무나 강쇠가 될 쇠돌바위처럼
　귀중한 꿈을 안고 물줄기로 그냥 흘러
　전기를 일쿠고 논밭을 적셨더라면
　장한 그 모습 세상에 남는건데…》

부리뺏힌 참새

어느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쨀쨀 말질하기 좋아하는 참새 한마리가 연자방아간으로 왔습니다.

마침 수적수적 일 잘하는 하늘소가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이쪽저쪽으로 포릉포릉 날아치며 조잘대기 시작했습니다.

《원, 부지런도 하지. 이렇게 많은 벼를 찧은걸 보니 내가 한것처럼 마음이 다 흡족하구나.》

참새는 이렇게 잴잴대며 몽틀한 부리로 벼알을 까먹었습니다.

하늘소는 잠시 땀을 들이느라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참새야, 그런데 넌 왜 벼알을 자꾸 까먹니?》

《아니야, 네가 찧은 쌀속에 껍질벗기지 않은 벼알들이 있어서 그래. 나도 일을 도와주고 너처럼 칭찬을 받자는거지 뭐.》

참새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입쌀알들을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이런 때 연자방아간주인이 들어섰습니다.

《요 발칙한 놈! 어디에 함부로 부리를 내밀어?》

주인은 솥뚜껑같은 손으로 참새를 움켜쥐였습니다.

그러자 참새는 제법 짹짹대며 뻔뻔스레 대들었습니다.

《주인님, 이건 정말 억울하군요. 난 사실 주인님의 하늘소가 연자를 돌리지 않고 저렇게 건달부리는것을 보다못해 내 작은 부리로라도 벼깍대기를 벗겨내고있는중인데요.》

《그게 사실이냐?》

주인은 참새의 속심을 알고도 남았지만 짐짓 되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구요. 뉘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나요. 그리고 난 주인님에게 저런 건달군을 당장 내쫓으라고 권고하고싶었댔어요.》

참새의 어처구니없는 말에 하늘소는 입을 딱 벌릴 지경이였습니다.

《그럼 네가 오늘부터 하늘소가 하던 일을 할테냐?》

《내가요?》

주인의 물음에 참새는 깜짝 놀라며 메밀눈을 또록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제꺽 이렇게 밀막았습니다.

《사실 내 부리는 짧고 몽툭해서 벼깍대기를 벗기다가 매끄러운 쌀알이 저절로 목구멍으로 넘어갈가 걱정이옵니다.

그러면 여직껏 청렴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그이상 수치가 없지요.》

참새의 말을 듣고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을 듣고보니 우리 집에는 방아가 둘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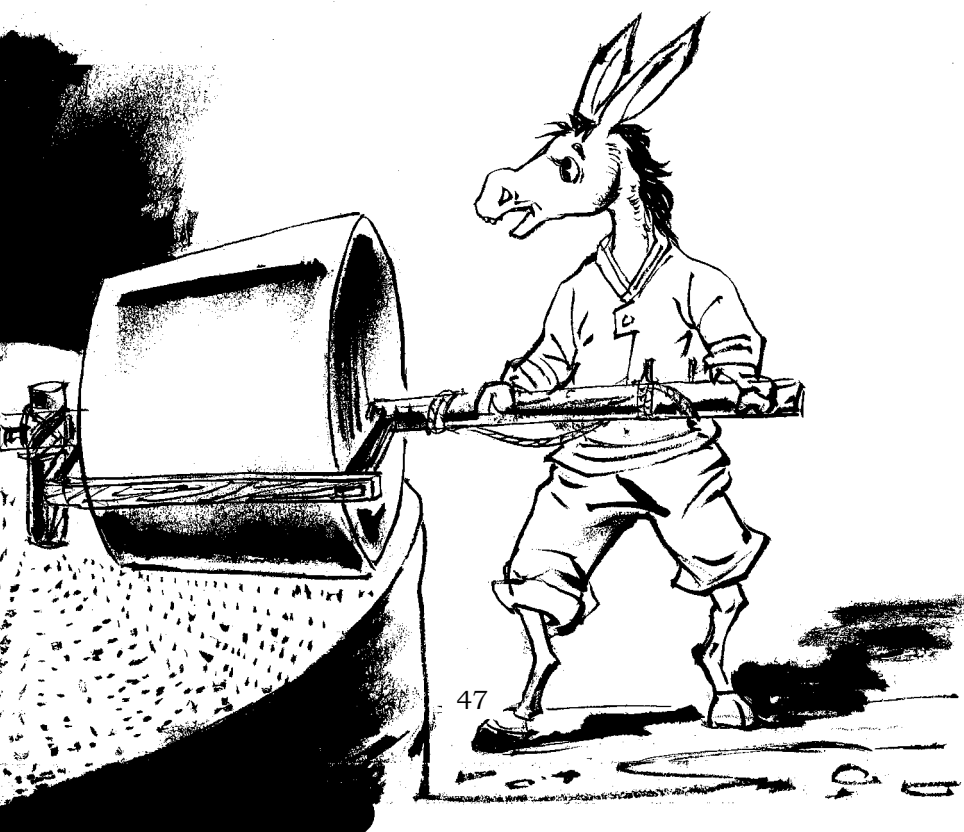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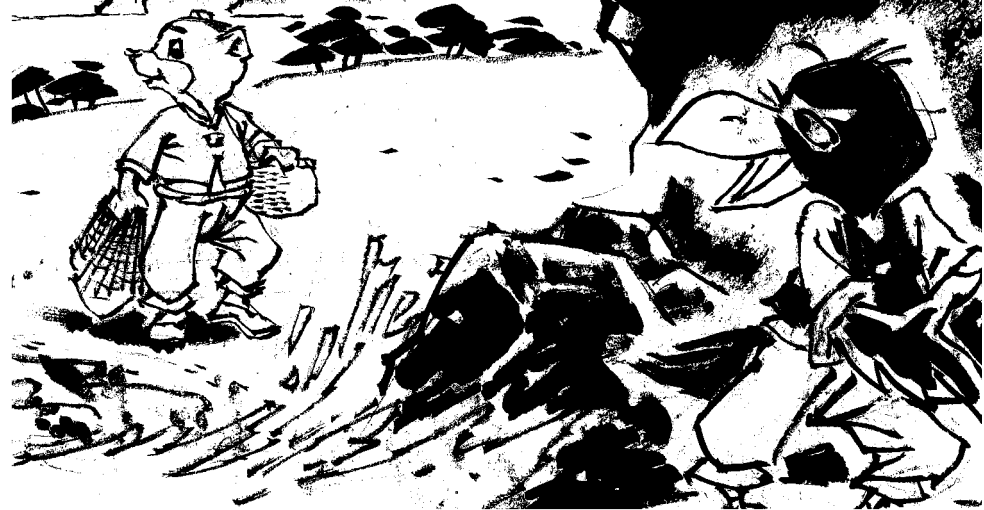
《방아가 둘이라니요?》

이번에는 정말 말 잘하는 참새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소가 돌리는 연자방아와 네가 찧어대는 입방아가 말이다. 그런데 나한텐 입방아가 필요없어.》

그러더니 주인은 그 자리에서 참새의 부리를 뽑았습니다.

연자방아간에서는 참새의 입방아질소리가 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소가 돌리는 연자방아질소리뿐이였습니다.

어느 바다가에
남의 턱부스레기로 살아가는
까마귀 날아왔네

마침 곰이
생선맛을 보려고
고기그물 메고서 바다에 나오자
까마귀 꺼먼 날개 마주쳤네
(옳지 오늘은 저 곰한테 붙으면
 먹을알이 생기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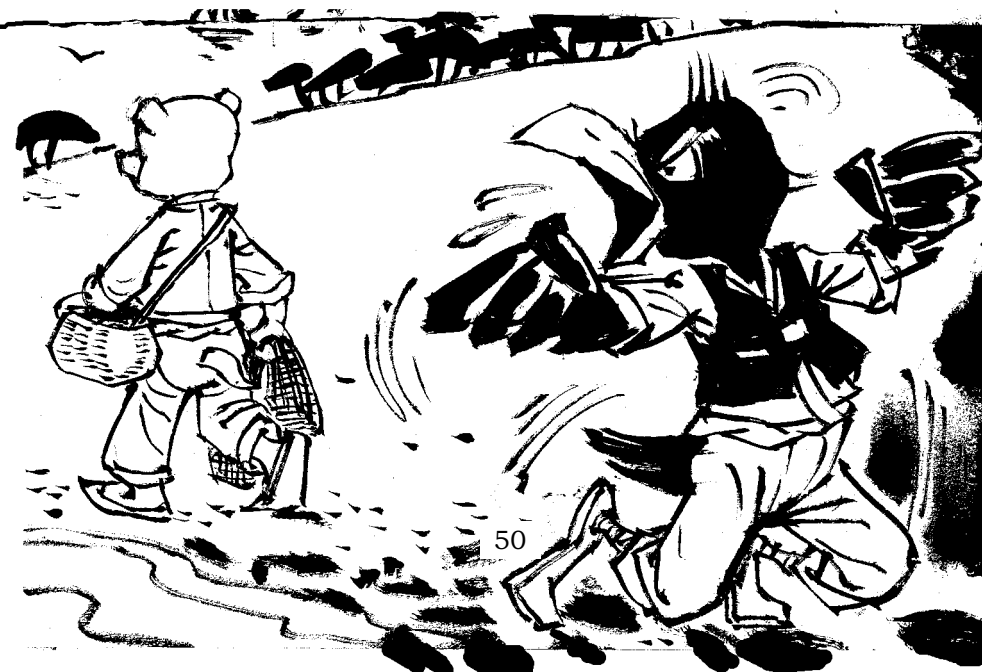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곰의 눈에 들가

궁리하던 까마귀
문뜩 떠오르는 수가 있어
모래불에 찍혀진 곰발자국곁에
다가갔네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소리치였네

《이 심술궂은 파도야!
네가 감히 곰장사님이 남기신
거룩한 발자국을 지우겠다고
달려드는거냐? 어림없다!》

그러며 날개를 펼치며
곰발자국 감싸는 까마귀 보고
곰은 쓰다달다 말이 없었네
그물질만 하였네

그러다가 곰이
잡은 물고기를 한마리도 던져주지 않고 가자
여직껏 곰발자국 지키여
사생결단하던 까마귀
스스로 돌변하여
곰발자국 짓뭉겼네

《흥, 여기가 어디라고
그 흉악하고 더러운 발자국을
함부로 낸단 말이야!
파도님의 깨끗한 손길로
다듬어진 백사장에…
퉤! 더럽다!
다시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테다》

그리고는 파도가 혹시
죽은 물고기라도 던져주지 않을가
모래불에 어정거릴 때
파도는 노한듯 밀려와
까마귀를 힘껏 후려갈겼네
물갈기에 휘말아
절벽에 내던졌네

《너같은 아첨군들에게
  차례질것이란
  너절한 죽음뿐이다》
파도가 남긴 이 말—
이것이 까마귀가 받은
아첨의 값이였네

어느날 암닭이 멍멍이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니, 삽과 곡괭이를 좀 빌려주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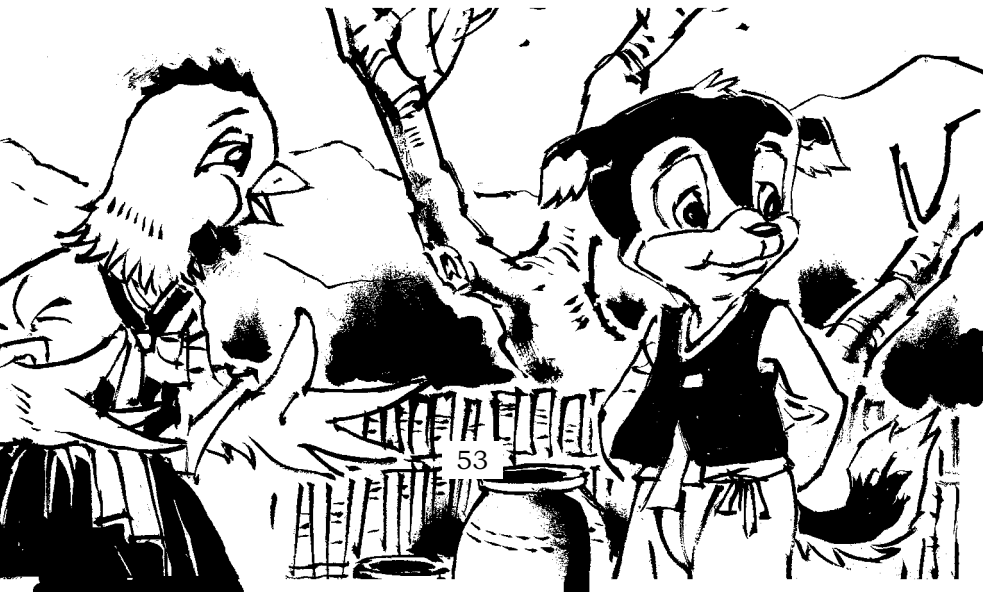
《무엇에 쓸려구요?》

마당에 나와 집둘레를 돌아보던 멍멍이가 두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예, 나와 함께 한마당에서 자란 게사니가 우리 마을 경비책임자가 됐다질 않우. 그래 우리 막내녀석을 경비원을 시키자니 한번 집엘 초청하려고요.》

《그럼 게사니한테 삽과 곡괭이를 삶아 대접하실려우?》

《원, 무슨 롱담도… 실은 우리 집 토방이 높아 게사니가 올라서기 불편해할것 같아 디딤돌을 하나 고여놓으려고요.》

멍멍이는 더 묻지 않고 삽과 곡괭이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 암닭이 멍멍이한테 또 삽과 곡괭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에 쓰려고요?》
멍멍이의 물음에 암닭은 시뜻해 대답했습니다.
《이젠 우리 막냉이녀석이 마을의 총경비대장이 됐다우. 말하자면 게사니보다 더 높아졌지요. 그래 게사니를 더는 초청할 일이 없고 해서 그 디딤돌을 뽑아 빨래돌로 다시 놓으려고요. 빨래돌을 뽑아 디딤돌로 고여놨댔으니까요.》
그 말에 멍멍이는 어이가 없어했습니다.
《난 그렇게 낯가림을 하는 이웃들하고는 상대를 않겠수다.》
그러자 암닭은 제편에서 성을 냈습니다.
《내 참 별꼴 다 보겠네. 삽과 곡괭이는 뭐 자기 집밖에 없다던가?》
암닭은 떠뚝거리며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암닭네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멍멍이를 비롯한 이웃들이 달려가보니 토방밑에서 암닭이 제 막내녀석의 다리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것이였습니다.

글쎄 마을 총경비대장이 된 막내녀석이 밤에 토방밑을 내려서다가 다리가 부러졌던것입니다.

제 어미가 디딤돌을 뽑아버린것도 모르고 여느때처럼 내려서다가 희뚝 몸이 뒤번져졌습니다.

《아이고! 꼬꼬… 네 다리가 부러지다니! 총경비대장이 되자마자, 꼬꼬…》

암닭네 막내녀석의 부러진 다리를 싸매주며 멍멍이가 말했습니다.

《다리나 부러진걸 다행으로 생각하시우. 벗들을 자기 출세의 디딤돌로나 생각한다면 다리가 아니라 목대가 부러지기 쉽지요.》

여름 어느날 의형제를 맺은 승냥이와 여우가 가마를 메고 강으로 물고기사냥을 갔습니다.

강가에 이른 승냥이와 여우는 저마다 큰 물고기를 잡아 한턱 내겠다고 장담하며 서로 멀찍이 떨어져앉아 낚시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을 등쳐먹는데 습관된 승냥이와 여우는 큰 물고기가 물려나오면 저마다 갈발속에 감추어놓았습니다.

그러다나니 점심때가 좀 지나서 서로 내놓은 수확물은 눈요기해도 시원치 않을 적은 물고기 몇마리뿐이였습니다.

승냥이와 여우는 그것을 가마에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생선국이 다 끓자 승냥이와 여우는 마치 사이좋은 친형제처럼 서로 양보하는척 했습니다.

《승냥이형님, 어서 많이 잡수라요.》

《난 여우동생이 맛있게 먹는것만 봐도 저절로 배가 부르겠네.》

승냥이와 여우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국가마를 가운데 놓고 입에 침발린 소리를 할 때였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던 까마귀떼가 이쪽저쪽에서 큰 물고기꿰미들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웬 떡이야?》

까마귀들은 벌떼처럼 갈밭에 내려앉아 순식간에 승냥이와 여우가 숨겨둔 물고기를 몽땅 요정냈습니다.

《아니, 저놈들이?》

때늦게 까마귀들을 발견한 승냥이와 여우는 국가마를 내동댕이치고 허둥지둥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그 잉어는 승냥이형님의 생일상에 놓을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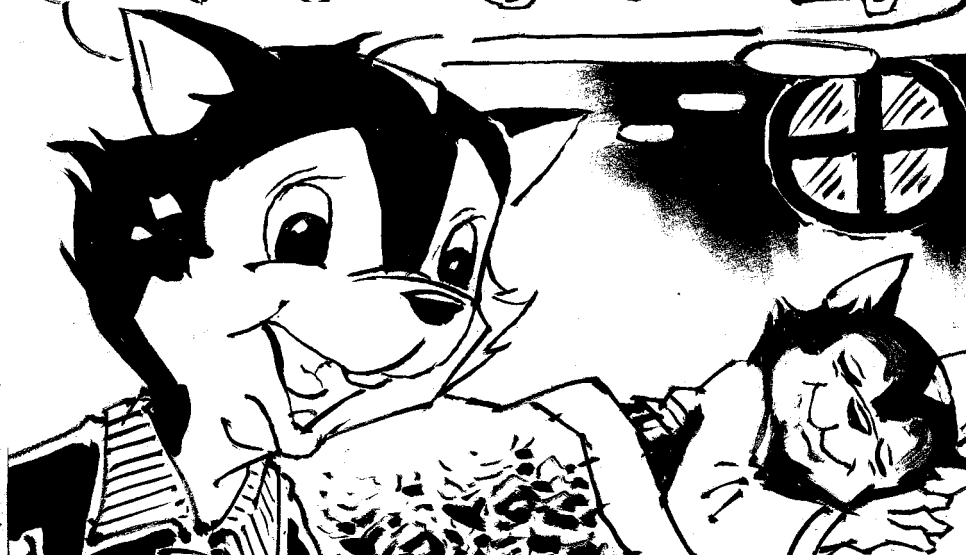
(그럼 교활한 여우가?)

《훠이, 여우동생의 몸보신에 쓸 가물치를 다 먹어치우다니… 괘씸한 놈들!》

(아니, 음흉한 승냥이가?)

승냥이와 여우가 서로 속심을 알아채고 눈알을 부라리는데 까마귀들은 트림까지 하고나서 하늘로 날아오르며 빈정댔습니다.

《아무래도 임자들은 한가마를 쓰며 살기는 틀렸네. 말로는 형님이요, 동생이요 하면서 서로 위하는척 하지만 진짜속심은 딴데 있단 말일세. 덕분에 우리만 물고기를 잘 먹고 가네.》

까마귀들한테 큰 물고기를 몽땅 빼앗긴 승냥이와 여우는 분풀이할데가 없어 서로 노려보며 한동안 으르렁대다가 제 소굴로 돌아가버리고말았습니다.

엄마고양이한테 장난꾸러기 새끼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새끼고양이는 엄마고양이가 자는 사이에 방안에서 뛰여놀다가 그만 식초병을 넘어뜨렸습니다.

(아차?!)

새끼고양이는 울상이 되여 어쩔줄을 모르다가 얼른 식초병을 세우고 쏟아진 식초를 방걸레로 닦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식초냄새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깨여나면 냄새를 맡고 욕을 할테지…)

잠든 엄마고양이를 바라보던 새끼고양이는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였습니다.

새끼고양이는 엄마고양이의 화장품통에서 고급향수병을 꺼내더니 마개를 열고 엄마고양이의 코끝에 향수방울을 살짝 묻혀놓았습니다.

(해해! 요렇게 하면 엄마가 식초냄새를 못 맡을거야.)
새끼고양이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밖으로 나가려 할제 엄마고양이가 잠에서 깨여났습니다.
《이런, 우리 장난꾸러기가 오늘은 웬일이냐? 엄마가 잠든 사이에 방안청소까지 깨끗이 하고… 향수까지 뿌렸구나.》
엄마고양이의 칭찬에 새끼고양이는 속으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꾀를 쓰니 욕벌이도 칭찬이 되는구나!)
새끼고양이가 흡족해할 때 엄마고양이는 찬장에서 반찬그릇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자, 잉어회다. 엊저녁에 옆집 멍멍이네가 가져다 준것을 깜박 잊고있었구나. 아직 변한것 같지는 않다. 어서 먹어라.》

새끼고양이는 너무 좋아 가르릉거리며 잠간사이에 잉어회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 놀던 새끼고양이는 얼마 안있어 배를 그러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애야! 왜 그러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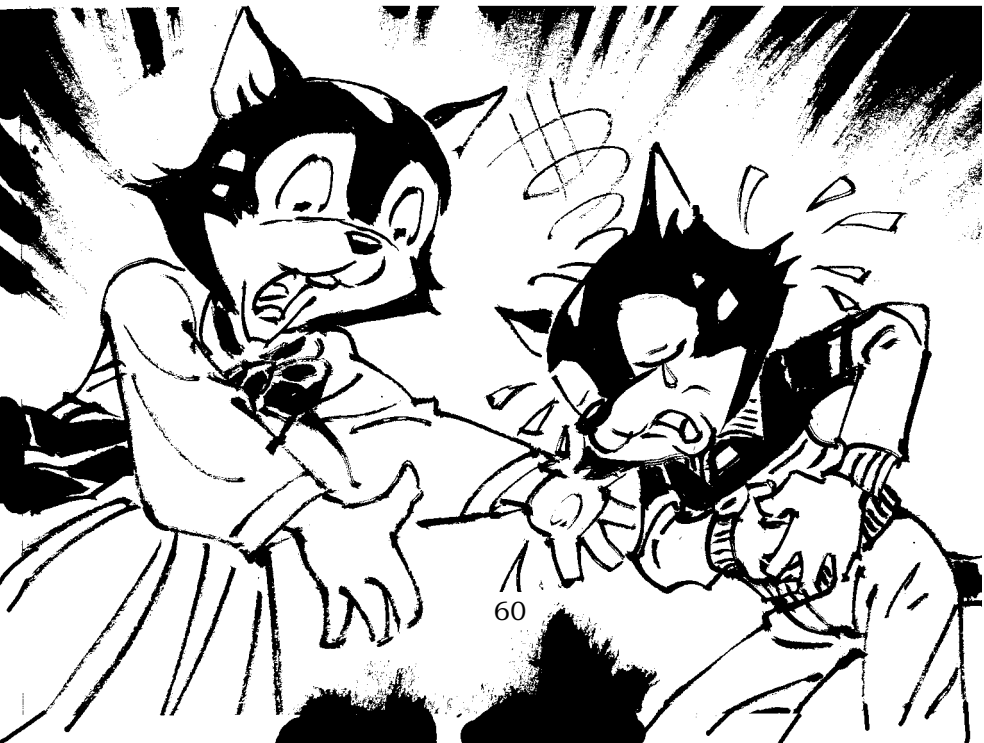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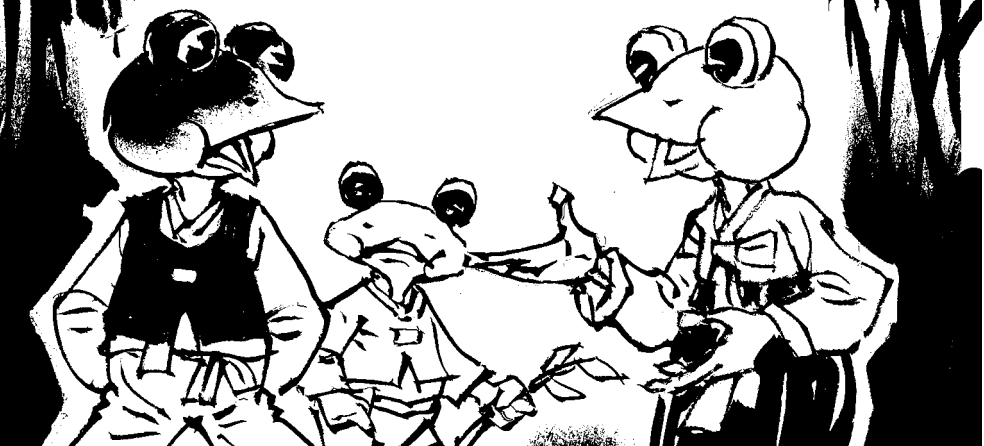
엄마고양이의 물음에 새끼고양이는 밸이 뒤틀려 대굴대굴 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잉어회를 먹었더니…》

《잉어회?! 냄새를 맡았는데 일없었는데…》

엄마고양이의 말을 들으며 새끼고양이는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엄마를 속인것이 내 배를 속인것이 되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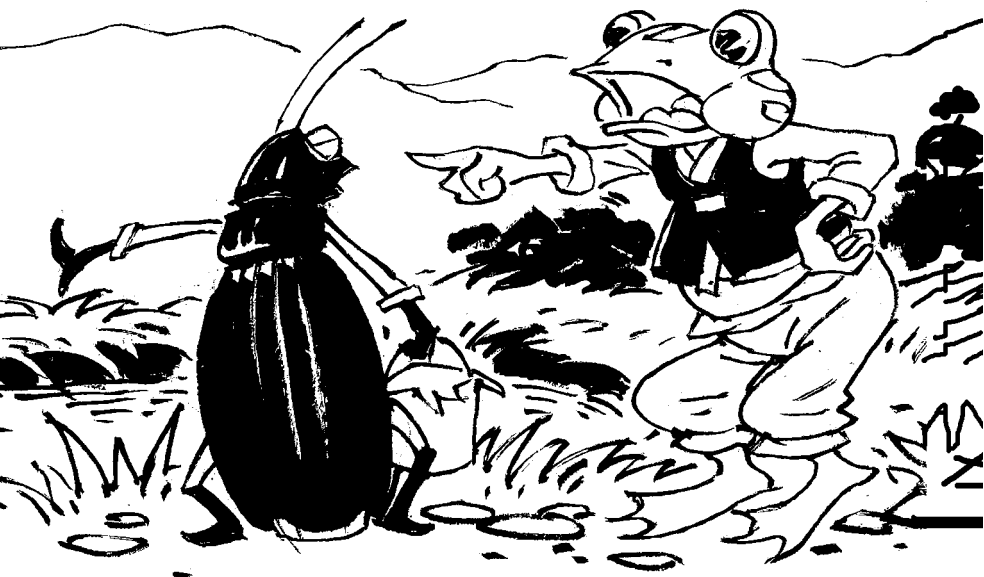
엄마고양이는 새끼고양이가 코끝에 향수를 쳤기때문에 변한 냄새를 못 맡았던것입니다.

어느 작은 물웅뎅이에
아빠엄마맹꽁이와 아들맹꽁이 살았네
하루는 엄마맹꽁이
아빠맹꽁이에게 하는 말

《여보 우리도
새 물웅뎅이를 파는델
나가보자요
남들은 벌써 며칠째 나가는데》

그러자 아빠맹꽁이 코웃음쳤네

《흥, 그건 바보들이나 하라지
이제 새 물웅뎅이를 파서
언제 그 덕을 본단 말이요?
그저 이렇게 그날그날 사는게
제일이야》

이때 곁에 있던 아들맹꽁이
못마땅히 말했네
《바보는 아버지예요
그럼 난 동무들이 새 물웅뎅이에서 헤염칠 때
넘겨다만 보라는거예요?》

눈감아준 맹꽁이

어느날 맹꽁이
물웅뎅이에 오물을 버리는
방구퉁이를 보았네
《아니 어쩌자고
  여기에 오물을 버리나?》

맹꽁이 큰소리로 꾸짖자
와뜰 놀란 방구퉁이
나쁜 냄새 조심하며 다가와
《임자 오늘만 눈감아달라구》

그러며 맹꽁이를 제집으로 끌고가
한상 잘 차려 대접했네
둘은 어느새 딱친구되였네

기분이 좋아진 맹꽁이
집으로 돌아오며 코노래까지 불렀네
(한번 눈감아주고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나도 이만하면 살줄 알지)

그런데 며칠 나들이 갔다온 맹꽁이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코를 싸쥐였네

방구퉁이 갖다버린 오물이 썩어나는 악취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됐네
(아이쿠! 어제 눈감아준 덕에
오늘은 코를 막아야겠구나)

맹꽁이 할수없이 이사짐 꾸리고
방구퉁이를 찾아가 한탄조로
말했네
《내 자네한테
  작은것을 받아먹고
  큰것을 버리는 놈이 되였네
  아이쿠! 이 맹꽁아—》

맹꽁이 어느날
물매미네 집앞을 지나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네

《요, 맹꽁아 그래 넌
　눈앞의것만 보고
　그뒤는 보지 못한단 말이냐?》

그 소리 듣고 맹꽁이
물매미네 집을 찾아들어갔네
두팔걷고 다짜고짜 따져물었네
《내가 뭘 눈앞의것만 보고
　그뒤를 보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자 물매미 못내 바빠하며
사죄하였네
《그건 우리 막내아들녀석을
  욕한 소리였네
  눈가림식으로 뚝막이를 했길래…》

물매미네 집에서 나온 맹꽁이
기분없이 방아깨비네 집앞을 지나는데
방아깨비네 집에선 이런 소리 들렸네
《요 답답맹꽁아!
  넌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느냐?》

(내가 하나만 알다니?…)
맹꽁이 다시 울끈하여
방아깨비네 집에 찾아들어갔네
《누굴 문맹자로 보는거요?
  나는 이 자리에서 백까지도 셀수 있소》

맹꽁이 대들자 방아깨비 사정했네
《그건 우리 동생이
  김매기를 하지 않고
  가을에 먹어댈 생각부터 하길래
  꾸짖는 소리였네 리해하라구》

맹꽁이 이번에도 쓴입 다시고
방아깨비네 집에서 나와버렸네
그리고는 깊이깊이 생각하였네

(내가 왜 남의 욕까지 먹게 됐을가?
 그건 다 지금까지 바로 살지 못했기때문이야
 오늘을 내가 바로 못살면
 래일엔 두고두고 자기 욕은 물론
 남의 욕까지 먹는것이야 당연하지)

어느 숲속에 승냥이가 살았습니다.

승냥이는 어느날 강가에 내려가 강물에게 말했습니다.

《맑고맑은 강물아, 넌 어쩌면 그런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를수 있니? 내게도 그런 재간을 좀 배워주렴. 난 이젠 악한 마음을 버리고 가수가 돼볼가 하는데 네 목소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구나.》

그러나 강물은 승냥이의 속심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흥, 네놈이 물흐르는 소리를 내여 착한 짐승들을 꼬여 잡아먹으려구? 음흉한 놈!)

강물은 이놈을 그대로 두어선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까이 다가와. 작은 소리부터 배워줄게.》

물소리내는 묘리를 배워주겠다는 강물의 대답에 승냥이는 좋아서 엉기적엉기적 기슭끝까지 내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순간 강물은 처절썩 기슭으로 뛰여올라 승냥이발밑을 화락 적셔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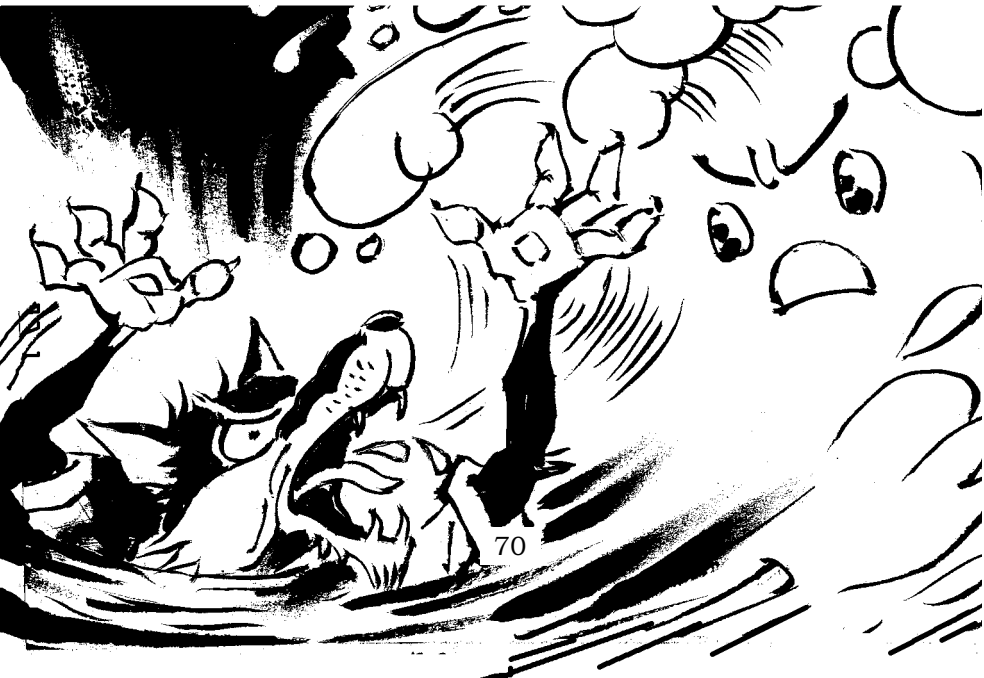
그러자 승냥이는 쭈르르 미끄러져 강물속에 빠지고말았습니다.

어푸! 어푸!

승냥이는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연방 물을 먹어댔습니다.

잠간사이에 배뚱뚱이가 된 승냥이는 마침내 《꼬르륵》소리를 내였습니다.

《자, 이젠 물소리내는 법을 잘 배웠지. 너같은 놈에게 배워줄 물소리는 꼬르륵소리밖에 없다.》

강물은 이렇게 말하며 승냥이놈을 먼바다가로 떠내려보냈습니다.

옆집의 어미돼지와 어미토끼가 새끼를 낳은지 며칠이 지나서 암말이 망아지 한마리를 낳았습니다.

망아지는 낳자마자 껑충껑충 뛰여다녔습니다. 그러나 돼지와 토끼의 새끼들은 아직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흥, 저런것들이 아무리 많은들 뭘해. 나처럼 한마리를 낳아도 오된것을 낳아야지.)

암말은 혼자 어깨를 으쓱거리며 친척집에 간 수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말이 망아지를 보면 좋아서 자기를 칭찬해줄것이 틀림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한참동안 집마당을 돌아치던 망아지는 옆집의 새끼짐승들을 보며 암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쪼끄마한것들은 누구냐?》

《너보다 먼저 낳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눈도 바로 뜨지 못했으니 사실상 네 동생벌되는 짐승들이라고 할수 있지…》

《오, 그렇구나.》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새끼돼지 한마리가 자기도 걸어볼 생각이 있는지 비칠거리며 일어서다가 제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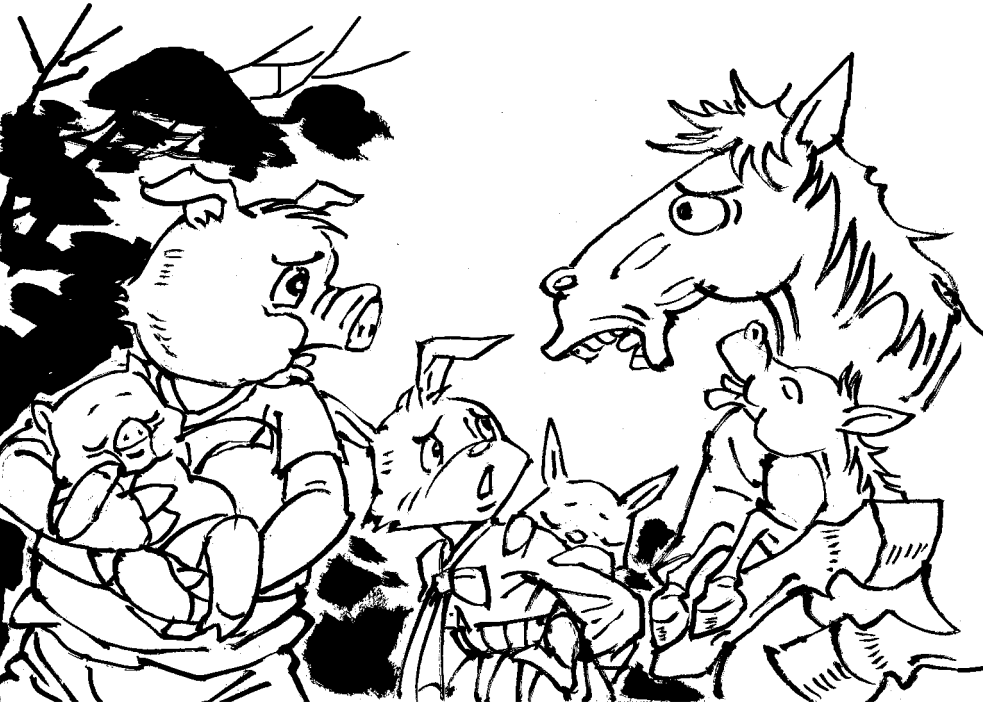
그러자 암말이 망아지에게 말했습니다.

《얘, 저것들이 너처럼 일어나서 뛰여다니려면 어미젖을 더 먹어야 해. 그에 비하면 넌 얼마나 어른이냐. 이제부터는 좁은 집마당에서만 뛰놀지 말고 큰길에 나가서 마음껏 뛰여보아라.》

그러자 망아지는 장한듯이 큰길로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몇걸음 못 가서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암말이 부리나케 달려가 망아지를 일으켜세워가지고 잔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일없다, 그쯤한건… 보렴, 옆집의 새끼짐승들은 아직 일어서지도 못하지 않니?》

마침 어미돼지가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이보세요, 제 새끼가 아무리 귀엽기로서니 남까지 걸고들거야 없지 않아요? 낳자마자 뛰여다니는거야 어디 그 집 망아지뿐인가요? 송아지, 새끼양, 새끼염소도 그렇고 병아리는 제 부리로 알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나요.》

어미돼지의 말에 어미토끼도 보탰습니다.

《그렇게 제 새끼만 제 새끼라고 하면서 애에게 남을 깔보는 나쁜 버릇을 키워주면 안돼요.》

이때 동구길로 친척집에 갔던 수말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망아지는 그쪽으로 마구 뛰여가서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이봐, 동생! 너도 비칠거리는것을 보니 어미젖을 더 먹어야겠구나. 나처럼 뛰여다니려면…》

《뭐, 동생?》

수말은 취중에도 어이가 없는지 노기어린 눈으로 처음 보는 망아지를 흘겨보다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뒤발질을 했습니다.

《오호홍!—》 망아지는 수말의 뒤발통에 턱주가리를 얻어맞고 길도랑창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암말이 정신없이 달려가 망아지를 그러안고 넉두리를 했습니다.

《이녀석아, 친척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아빠보고 동생이 뭐니? 동생이…》 수말이 돌아오면 칭찬을 받을줄 알았던 암말은 억이 막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를 탓할것도 없지. 제 새끼라고 무턱대고 두둔하며 남을 깔보는 버릇을 붙여주다나니 이런 봉변을 당하는 수밖에…)

암말은 오래도록 경망했던 자신을 후회하였습니다.

멋쟁이장끼가 가까운 산기슭에서 수닭을 만났습니다.

수닭은 산기슭의 너럭바위에다가 부리와 발톱을 날카롭게 갈고있었습니다.

《여보게 수닭, 그렇게 부리나 뾰족하게 갈고 발톱이나 세워선 뭘하나? 그럴 시간이면 나처럼 몸맵시나 가꾸게.》

장끼의 시까스름에 수닭은 쓰다달다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러자 멋적어진 장끼는 수닭앞에서 보란듯이 자기의 울긋불긋한 몸매를 한바퀴 빙그르 돌려보이고나서 더 열을 올려 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자네도 들었겠지만 예로부터 사람들은 우리 꼬리털 하나를 가지고도 중요한 문서들을 적어두는 펜깃으로 썼는가 하면 전장의 무사들은 용맹의 상징으로 투구에 꽂군했지.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말야.》

이때 하늘공중에서 새매 한마리가 높이 떠 땅우를 굽어보고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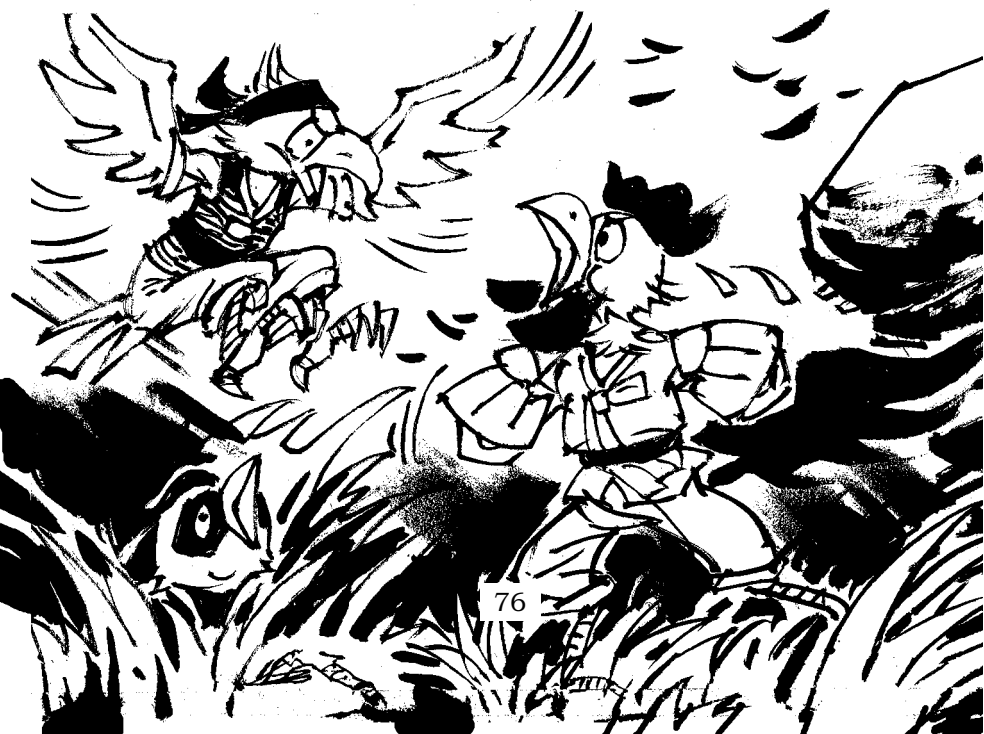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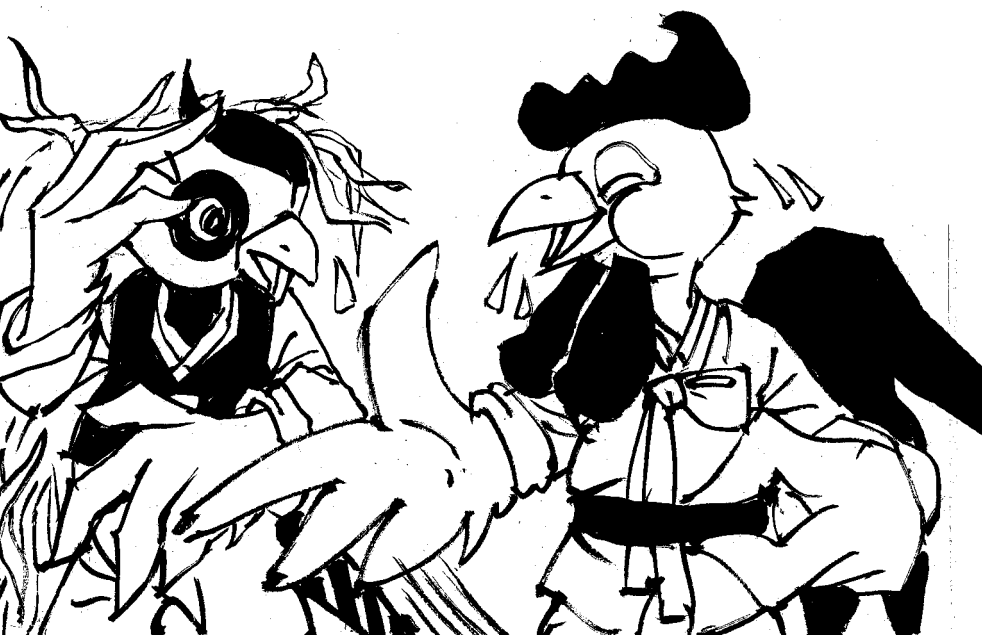
어느새 눈치챈 장끼는 횡설수설하던 부리를 다물고 풀덤불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풍을 만난듯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수닭은 목털을 세우고 바위에 의지하여 내리꽂히는 새매와 두렴없이 싸웠습니다.

수닭이 어찌나 기상이 도도하게 맞서싸우는지 새매는 끝내 물러가고말았습니다.

수닭의 부리에 눈통을 쪼이고 날카로운 발톱에 깃털을 한웅큼 뜯기운채 말입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한참만에야 덤불속에서 나온 장끼는 수닭보기가 멋적었던지 몸뚱이에 잔뜩 묻은 검불들을 뜯어내며 제풀에 화를 냈습니다.

《이 못된 놈의 겸불들! 어디라고 감히 달라붙어? 누구의 아름다움을 감히 훼손시켜보려고…》

그것을 보고 여직껏 말이 없던 수닭이 어이없이 웃고 나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여보게, 친구! 겸불들을 탓할게 있나. 제 아름다움을 지킬 힘을 키우지 않은 자신을 탓해야지. 명심하라구, 아무리 제 용모가 으뜸이고 전해오는 전통이 어떻다해도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으면 그런 자랑은 한갖 남의 웃음거리밖에 안된다는것을!》

말거미가 풀숲 여기저기에
거미줄을 쳐놓았네
그것을 본 곤충들 불안에 잠겨
항의했네
《아니 어쩌자고 곳곳마다
 그물을 쳐놓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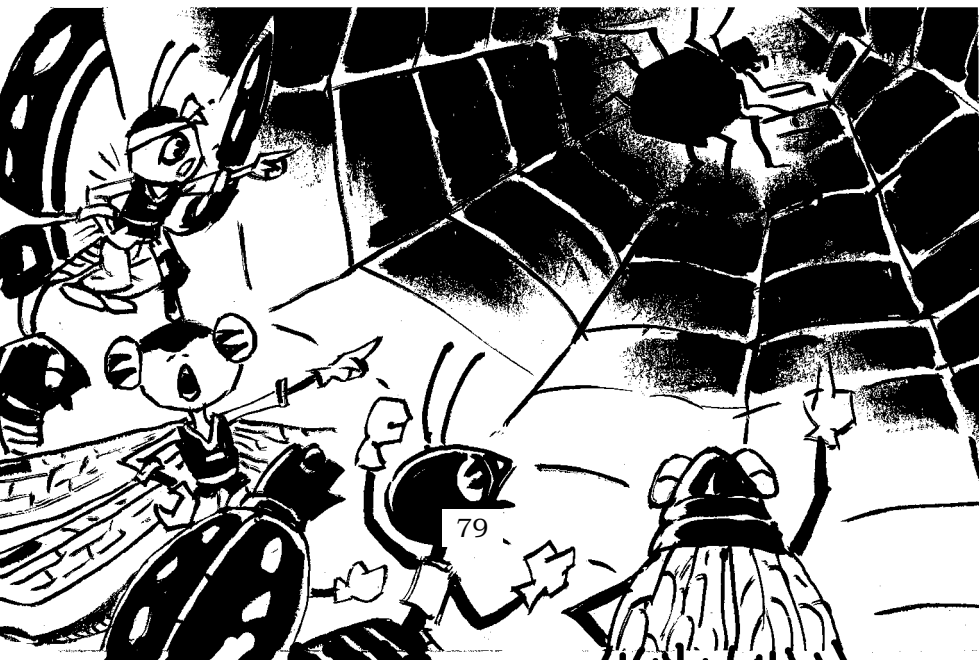
그러자 말거미 천연스레 하는 대답
《걱정들 말라구 난 그네줄을
 쳤을뿐이네
 자, 보라구》
말거미 거미줄에 매달려 흔들흔들

어느날 뜻밖에도
말거미가 친 그네줄에
매미 하나 걸렸네

《…드디여 걸렸구나!》
숨어있던 말거미 얼른 달려나와
독침을 쏘며 매미를 덮쳐물었네

주린 배 채우게 됐다 환성 지르던 말거미
어인 일인가? 맥이 탁 풀렸네
《재수없이 바람에 날려온
매미의 허울이 걸려들건 뭐람》

약이 오른 말거미
이웃들이 지켜보는줄도 모르고
씨벌였네

곤충들 그걸보고 쏘아붙였네
《이놈아! 매미의 허울을 탓할게 있느냐?
남잡이 그물을 쳐놓고 그네줄이라 우겨대던
네놈의 허울도 벗겨졌는데…》

네발가진 도마뱀이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고있는데 앞에서 웬 길손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있었습니다.

그는 여우였습니다.

《샌님! 웬일이시오? 도적이라도 맞혔소?》

도마뱀이 묻자 여우는 더 큰 소리로 넉두리하며 산아래 마을쪽을 가리키는것이였습니다.

《글쎄 멍멍이란 놈이 내 꼬리를 물어끊질 않았겠나. 세상에 둘도 없이 탐스러운 내 꼬리를…》

도마뱀은 여우가 나쁜 짐승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하도 통분해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동정이 갔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루 멍멍이가 샌님의 꼬리를 잘라냈단 말이요?》

도마뱀의 물음에 여우는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댔습니다.

《내가 최근에 닭병연구에서 성과가 있다는 소릴 얻어

들었는지 나를 닭장에 데려다놓구선 생트집을 걸지 않겠나, 생트집을… 내가 닭을 잡아먹으러 왔댔다고…》

《그래요?》

도마뱀은 여우가 꼬리없는 엉뎅이까지 내보이자 측은한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거참 안됐군요. 우리 도마뱀처럼 꼬리가 잘라져도 다시 돋아나올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 말에 여우는 두귀를 발딱 세웠습니다.

(가만, 저 도마뱀을 잡아먹으면 내 엉치에도 꼬리가 새로 돋아나지 않을가?)

여우는 노란 눈알을 빙그르르 돌리고나서 도마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듣던바대로 마음이 착하군. 자네의 동정을 받으니 꼬리가 새로 돋은것만큼 기쁘네. 내 그런 동생을 위

해 무엇을 아끼겠나. 올해 겨울엔 찬 땅속에 들어가 동면할것없이 따끈한 내 배속에 들어가 겨울을 나게.》

《뭐, 뭐?!…내가 샌님의 배속에?》

도마뱀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우는 도마뱀이 제 속심을 눈치챈걸 보고 다짜고짜로 도마뱀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도마뱀은 날래게 몸을 피해 바위구멍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에이씨, 빌어먹을 도마뱀.》

여우는 못내 아쉬운듯 바위구멍을 들여다보더니 씩씩거리였습니다.

(내가 저런 놈을 동정하다니? 나쁜 놈을 동정하는건 제스스로 제 목숨을 내놓는것이지.)

도마뱀이 이렇게 자신을 뉘우치고있을 때였습니다.

《호참, 내가 잠간 롱질을 한걸 가지고 그렇게 놀래가지고야…》

여우는 살기띤 낯색을 감추고 깔깔 웃어댔습니다.

그러나 바위구멍에선 도마뱀의 이런 웨침이 울려나왔습니다.

《이놈아, 너같은 놈에겐 꼬리가 아니라 대가리가 잘려도 절대로 동정할 필요가 없다는걸 난 잘 알았다. 정 나를 배속에 동면시키고싶으면 이 바위나 통채로 삼켜라.》

어느 여름날 산골마을의 메돼지와 메토끼가 들마을에 장을 보러 가게 되였습니다.

험한 고개를 몇개씩 넘어가느라 그들은 서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들마을 동구길에 들어서자 마침 알룩고양이가 얼음과자를 팔고있었습니다.

《메토끼야, 땀도 식힐겸 우리 얼음과자를 하나씩 사먹고 가자.》

《그러자요.》

메돼지의 말에 메토끼도 제꺽 응했습니다.

그런데 메돼지는 제 돈주머니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능청스레 메토끼의 돈주머니를 건너다보았습니다.

《나한텐 큰돈밖에 없어서 그러니 너한테 거스름돈이 있으면 좀 내렴.》

메토끼는 제 돈주머니를 풀어 얼음과자를 두개 사 메돼지와 나누어먹었습니다.

《참, 메토끼는 마음이 착하구나.》

알룩고양이는 메토끼를 칭찬했습니다.

(흥, 그런 칭찬을 받아선 뭘해? 나처럼 공짜로 먹어야지.)

메돼지는 곁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마당에 들어서니 별의별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양이 바구니에 가득 따가지고 온 산딸기는 보기만 해도 입안에서 군침이 돌았습니다.

《메토끼야, 거스름돈 남은것이 있으면 저 산딸기도 좀 사먹자꾸나. 산딸기 몇알 사먹자고 내 큰돈을 터칠수야 없지 않니?》

메돼지의 말에 메토끼는 이번에도 제 돈주머니를 풀어 산딸기를 샀습니다.

《허, 언제봐야 메토끼는 마음이 후하다니까.》

산양도 메토끼를 칭찬했습니다.

메돼지는 돌아서서 주둥이를 삐쭉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메돼지와 메토끼가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창살같은 비줄기가 억수로 쏟아져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돼지와 메토끼는 얼른 거리에 있는 려관으로 뛰여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비를 그으러 온 알룩고양이와 산양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멎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멎기는커녕 번개가 치고 우뢰까지 울었습니다.

하는수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밤을 묵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려관책임자인 멍멍이가 들어왔습니다.

《멍멍이아저씨! 저와 메돼지아주버니의 숙식비가 얼마인가요?》

메토끼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모두 쏟아놓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메돼지는 돌아앉아 담벽만 바라보고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산양이 메토끼에게 눈을 끔쩍해보이며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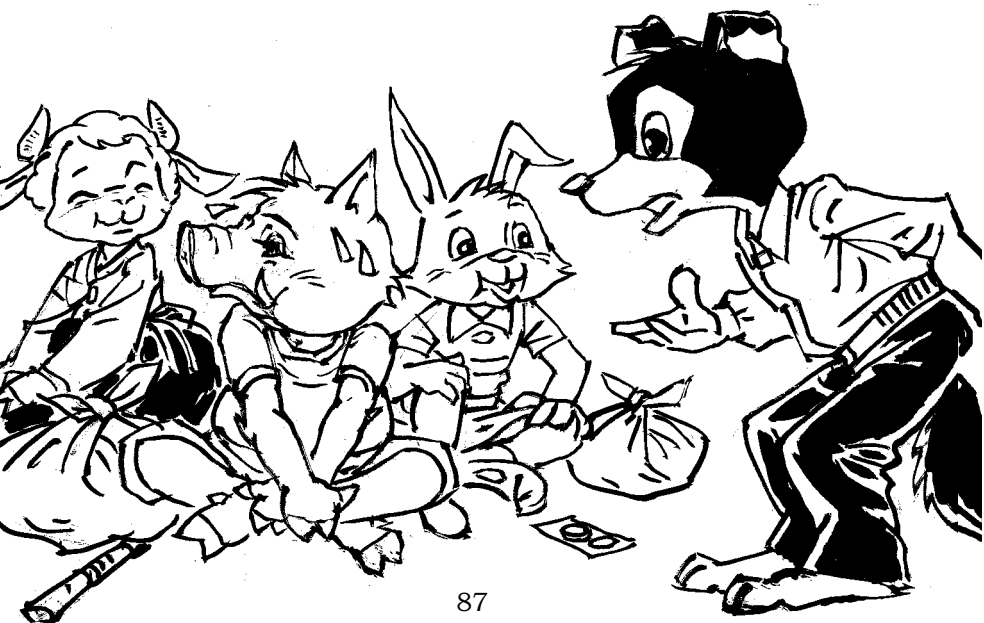
《요런 거스름돈을 가지구서야 너희 둘이서 먹고잔 값을 치르겠니?》

메돼지가 들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메돼지는 못 들은척 담벽만 뚫어지게 쳐다보고있었습니다.

보다못해 이번엔 알룩고양이가 메돼지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메돼지아주버니, 마침 아주버니 돈쓸일이 생겼군요. 어서 먹고잔 값을 치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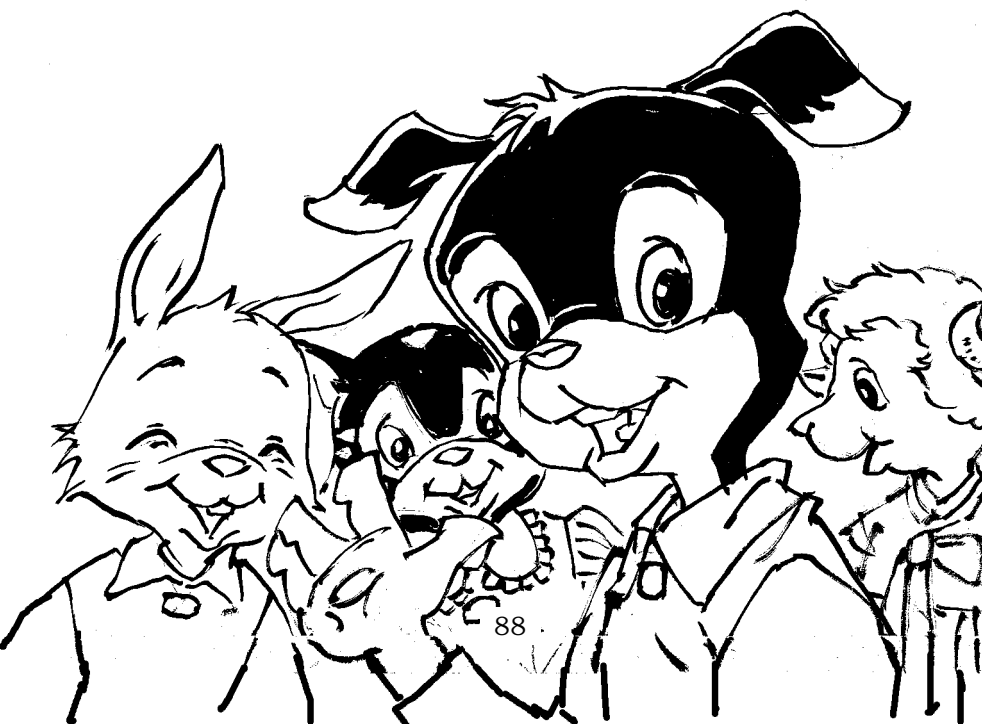
《자네들은 웬 참견인가? 어서 제 값들이나 치르고 갈 노릇이지.》

메돼지는 역정을 내며 할수없이 큼직한 제 돈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옛수다.》

메돼지는 멍멍이가 부르는 값을 던져주듯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늦게야 사연을 안 멍멍이는 쓰겁게 웃고나서 메돼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허허 참, 여보게 메돼지! 저 메토끼는 거스름돈을 쓰고도 누구나의 칭찬을 사는데 자넨 어째서 미움을 사나? 결국 자기보다 남을 위한 마음이 없어서이지. 그 마음은 아무리 큰돈을 쓴다 해도 살수 없어.》

메돼지는 그 소리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돌아앉아 담벽만 멍하니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딸 가진 장끼가 아들 가진 메추리에게 사돈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나같이 못생긴것한테 멋쟁이장끼님이 사돈을 맺다니?…》

메추리는 몸둘바를 몰라했습니다.

《원, 무슨 말씀을… 난 아직 숱한 곳에 다녔지만 메추리님처럼 수양있어보이는이는 보질 못했소.》

장끼는 알락달락한 긴 꽁지를 추켜들고 녹두빛목도리를 자랑하며 메추리앞을 틀지게 거닐었습니다.

《아마 저 하늘의 둥근달도 메추리님만큼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것이요.》

한창 떠벌이고난 장끼는 메추리한테 정답게 다가서며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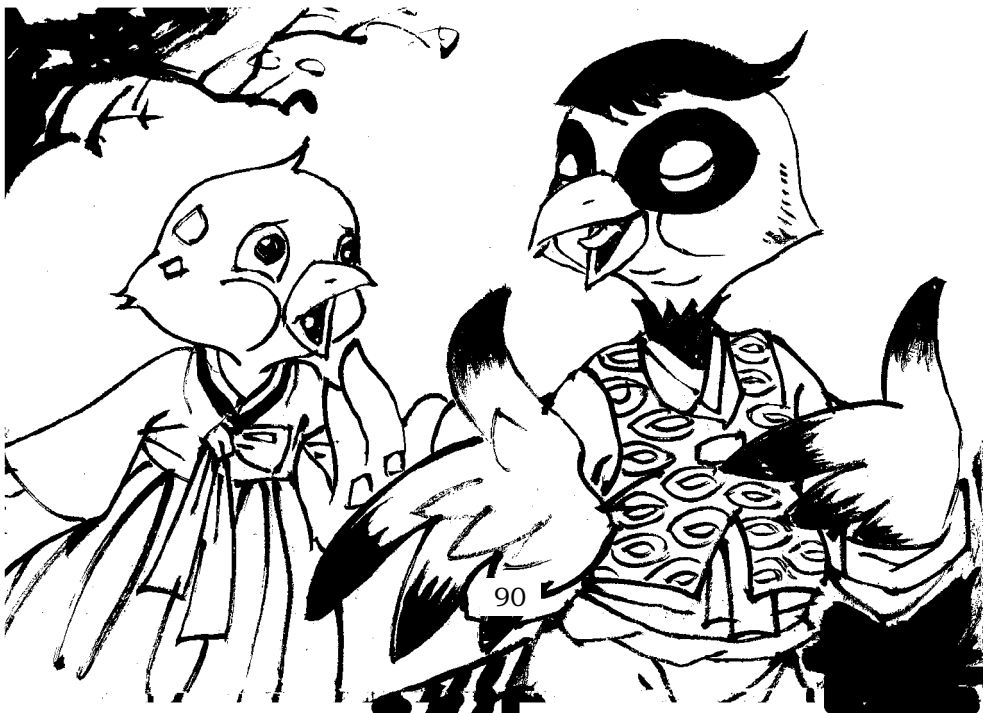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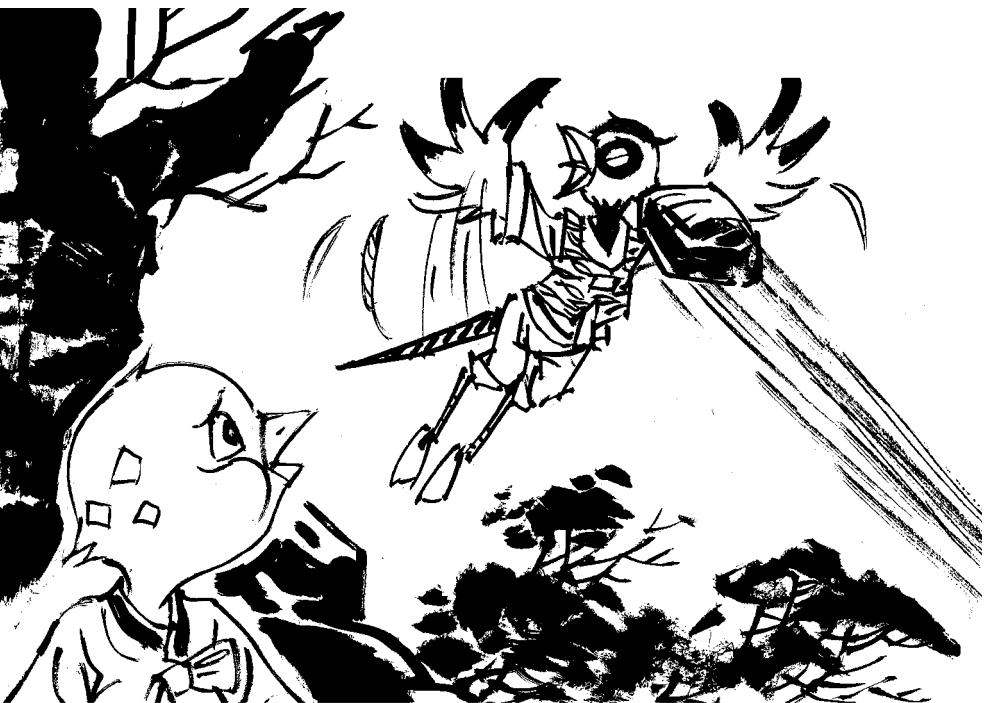
《저… 듣자니 메추리님한테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보석들이 있다던데… 어떤것인지? 아마 우리 애들이 일생 먹고도 남을 보석이겠지요?》

그 말을 듣자 메추리는 몹시 딱해했습니다.

《장끼님, 나한테 있는 보석이란 당신의 부인 까투리가 알들을 깨울적에 흉물스러운 뱀 같은것들이 다가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것들이랍니다.》

《그래요? 그런걸 난 또…홍보석이라도 되는가 했지. 돈벼락이라도 맞는줄 알았군.》

장끼는 언제 자기가 사돈을 맺자고 했던가싶게 메추리를 시답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좀 지내 빠른감은 있지만 우리 애의 청혼은 취소요. 우리 애는 그런 돌을 보기만 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그럼 안녕히!》

이런 말을 남기고 푸드득— 날아가는 장끼를 보고 메추리는 억이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올라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 맞은켠 산기슭으로 날아가는 장끼를 맞혔습니다.

끽—장끼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메추리는 돈벼락을 맞고싶다던 장끼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허참, 별난 돈벼락도 다 맞는군.》

메추리는 돈밖에 모르던 장끼의 운명이 더없이 가엾게 생각되였습니다.

늙은 승냥이
굶주려 울어대는 새끼승냥이를 밀어놓고
바느질하여 모자를 만드네
곰모자 산양모자 또 누구누구 모자…
《이것들만 불한당으로 몰아 없애버리면
그다음에야 내 세상이지》

밤늦도록 모자를 만든 늙은 승냥이
새벽녘에 토끼네 집에 불을 놓았네
그리고 거기에 곰모자를 떨구었네

아닌보살 허둥지둥 돌아오다가
이번에는 너구리네 집을 향해 바위돌 굴렸네

와당탕! 지꿍—담벽이 무너지자
바위돌 박혔던 자리에
산양모자 떨궈놓았네
동산에 복닥소동이 일어났네
동산의 짐승들 토끼랑 너구리네 집터에
모여들자
늙은 승냥이 마치 수사원이 된듯
귀신같이 곰모자 산양모자 찾아냈네
그리고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여
고래고래 큰소리를 쳤네

《범죄자는 명백하오
방화자는 곰
너구리네 집을 무너뜨린 악당은
산양이요
절대로 이런자들을 용서할수 없소》

늙은 승냥이 증거물
모자를 흔들며 목청을 높이자
아연해진 동산짐승들 술렁술렁
이때 뒤늦게 나타난 새끼승냥이들
제 에미 쥐고있는 모자를 보자
무턱대고 편역들었네

《옳아요. 그런 도적놈들은 당장
사지를 찢어 와직와직 씹어…》
《당장 나서라! 우리 엄마가 만든
모자를 훔친 놈들은…》

《엉?! 우리 엄마가 만든 모자?》
새끼승냥이들 말에 동산짐승들
모두 깜짝 놀라는데

늙은 승냥이 급해맞아
새끼승냥이들을 쥐여박네

《이 멍텅구리같은것들!
내가 언제 이 모자들을
만들었단 말이냐?》

허나 일은 이미 깨여진 사연
늙은 승냥이의 심보 깨달은 동산짐승들
승냥이의 족속들을 두들겨팼네

쭉—뻗어버린 그놈들한테
증거물모자를 씌워주었네
《네놈들이 만든 모자이니
네놈들이나 쓰고 저승길을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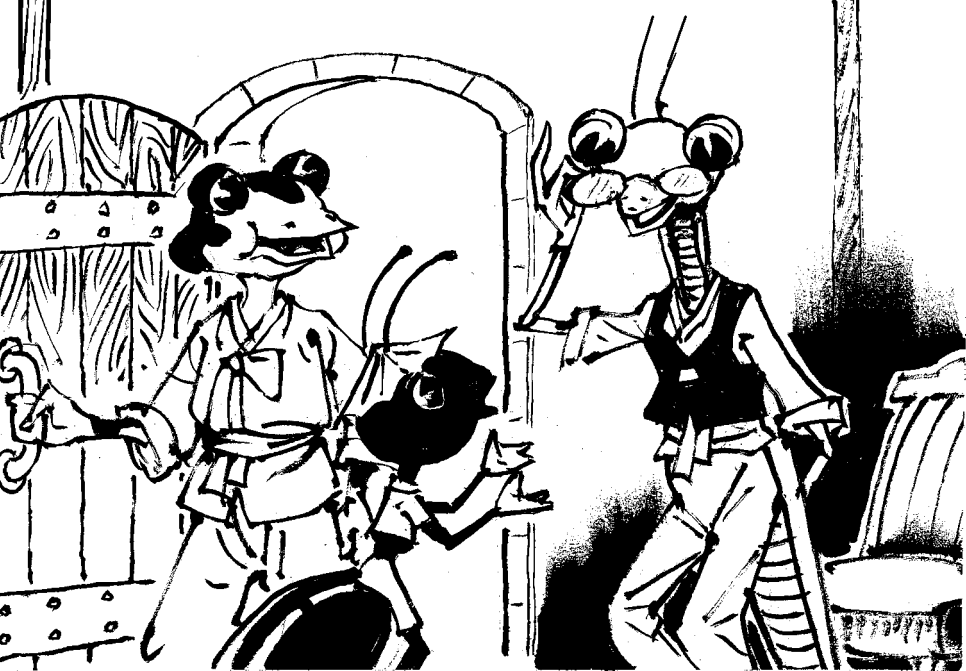
곤충들이 모여사는 마을에 사마귀가 촌장이 되였습니다.

사마귀는 촌장이 되자마자 쑥대끝에 알림판을 걸었습니다.

《회계원을 뽑는다. 청렴결백하고 능력있는자로서 우리 풀마을의 재정을 맡아보게 된다. 희망있는분들은 촌사무소로 올것. 촌장 사마귀》

이것을 본 풀마을 곤충들은 사마귀를 모두 칭찬했습니다.

《사마귀촌장한테 믿음이 가는군.》

《그러게 말이요. 정말 괜찮은 촌장을 만났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웃마을 촌장인 참개구리가 사마귀를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마침 촌사무소에는 잘룩개미가 회계시험을 치러 와있었습니다.

사마귀촌장은 안경을 밀어올리며 잘룩개미한테 복잡한 셈세기문제를 내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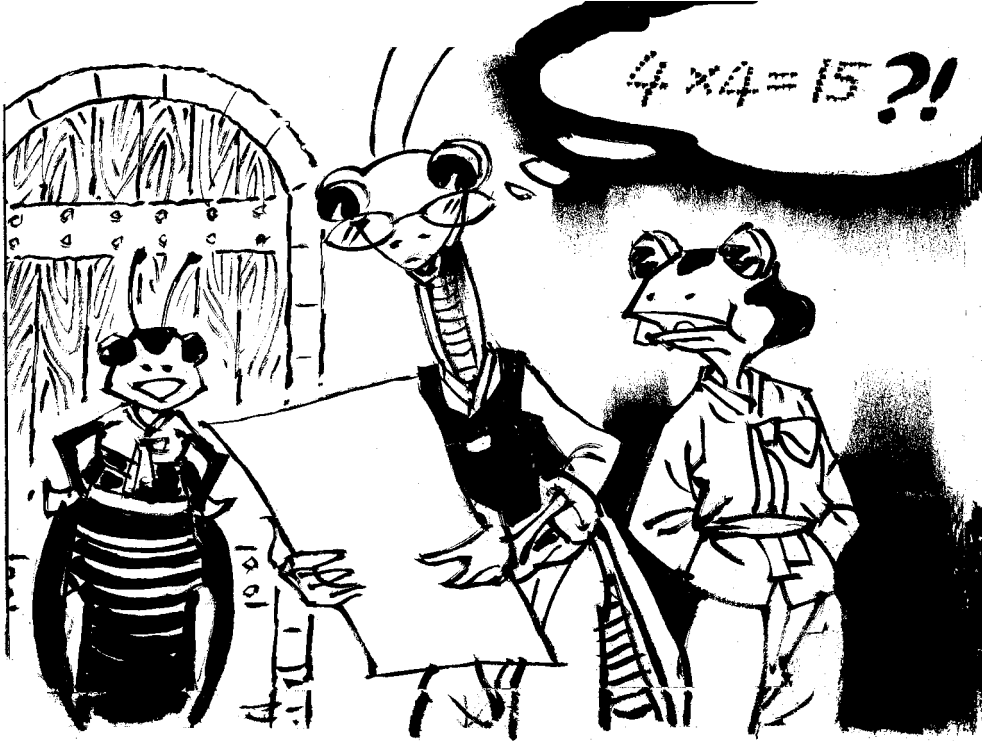
잘룩개미는 잠간사이에 정확한 답을 냈습니다.

《음, 괜찮군. 가서 기다리게.》

사마귀는 쓰다달다 말없이 잘룩개미를 돌려보냈습니다.

《내 생각엔 잘룩개미가 적당할것 같군. 왜 그냥 돌려보내나?》

곁에 있던 이웃촌장인 참개구리가 참견을 하였습니다.

《아니, 나보다 촌장경험을 오래 가진 참개구리형님이 그런 소릴 하시오?

촌장질을 말썽없이 해먹자면 지내 까밝아진것들을 밑에 두고 일하는게 오히려 우환이지요.》

사마귀촌장의 말에 참개구리촌장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청렴이요, 결백이요 떠들어놓고 실지에 있어서는 그와 정 반대로…연막탄을 꽤나 잘 치는군.)

이때 소똥구리가 촌사무소문을 두드렸습니다.

《임자도 시험을 쳐보자고 왔나?》

소똥구리는 대답대신 웬 종이장을 내밀었습니다.

(벙어리인가? 차라리 벙어리회계원이면 더 좋지.)

종이장에는《4×4=15》이라고 씌여져있었습니다.

(음, 그러니 나머지 1은 촌장몫이란 말이지? 꽤 똑똑하군.)

사마귀촌장은 참개구리촌장이 볼세라 종이장을 뒤집어놓고 회계원임명장에 제꺽 수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도와가며 풀마을을 위해 청렴결백히 일해 보세.》

사마귀촌장이 소똥구리의 손을 잡으며 의미있는 목소리로 말하자 소똥구리는 성수가 나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소똥구리는 벙어리가 아니였던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참개구리촌장이 더는 그 자리에 있기가 역스럽다는듯 모둠발로 풀마을 촌사무소문짝을 박차고 나오며 축하는커녕 욕사발을 안겼습니다.

《흥, 누가 누구를 시험쳤는지 모르겠군. 하긴 아무개가 시험을 쳤어도 답은 돈벌레이지.》

얼마 오래가지 못해 풀마을 쑥대끝에는 다른 알림판이 내걸렸습니다.

《사마귀를 촌장직에서 해임한다.》

처음으로 알을 낳아 품어깨운 엄지오리는 아직 눈도 바로 뜨지 못한 새끼오리들을 바라보며 그리도 흡족해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나를 엄마! 엄마! 하며 따라다닐테지.)

제 기분에 취해있는 엄지오리한테 여우가 찾아왔습니다.

여우는 구럭에서 가물치 한마리를 꺼내놓으면서 수선을 떨었습니다.

《에구! 몸이 몹시 축갔구만. 이걸로 몸보신을 하라구. 내 손으로 잡은걸세.》

여우의 친절에 엄지오리가 어리둥절해하자 여우는 더 삽삽하게 다가들었습니다.

《원, 새끼오리들이 귀엽게두 생겼다. 어쩌면 신통히들 어미를 닮았을가?》

여우는 할짓 엄지오리의 눈치를 살피고나서 간청하다싶이 말했습니다.

《새끼오리들을 돌보면서 내 이틀만 여기서 묵게 해주게. 그걸루 가물치값을 톡톡히 받은셈 치지.》

엄지오리는 그까짓 청이야 못 들어줄가 하며 쾌히 승낙했습니다.

여우는 못내 기뻐하며 엄지오리보다 더 극성스레 새끼오리들을 돌보았습니다.

새끼오리들이 둥지에서 떨어지면 두손으로 조심히 받쳐 들여놔주고 털이불을 조금만 젖혀놓아도 꼭꼭 여며주었습니다.

(모를 일이다. 다들 여우는 나쁘다 했는데… 어쩌면 저 여우는?)

엄지오리가 저혼자 목을 기웃거리고있는데 엄지오리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여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여우라고 다 같겠나? 난 못된짓을 일삼아 남들의 저주를 받고 애매한 여우들한테까지 화가 미치게 하는 작자들을 가만두지 않으려네. 그러자면 나부터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여우의 말에 다소 안심이 된 엄지오리는 그동안 알을 깨우느라 밀렸던 잠을 이틀이나 정신없이 잤습니다.

삼일째되던 날 아침 눈을 떠본 엄지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열마리나 넘는 새끼오리들이 모두 없어졌던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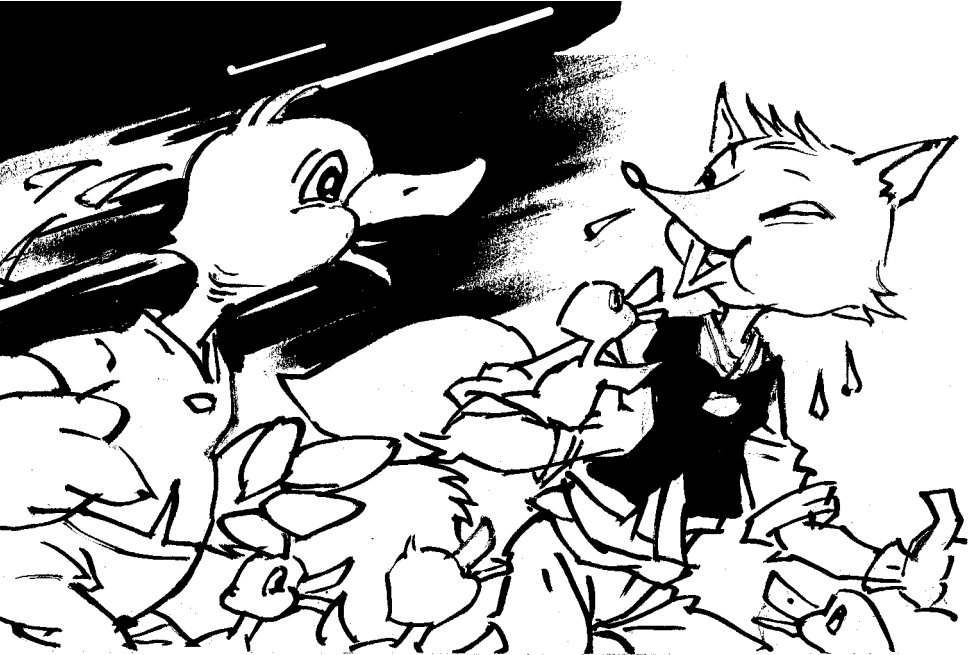
물론 여우도 보이지 않구요.

엄지오리는 부리나케 동구길로 달려나갔습니다.

여우가 새끼오리들을 끌고가고있었습니다.

《얘들아! 어디로 가니! 엄마가 여기 있다.》

엄지오리는 황급히 새끼오리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새끼오리들은 엄지오리의 부름에도 아랑곳없이 여우의 뒤만 졸졸 따라갔습니다.

《헹, 엄마?! 엄마는 나야. 얘들이 세상에 처음 눈을 떴을 때 그곁엔 바로 내가 있었단 말이야.》

여우는 코김을 풀풀 내불며 계속 새끼오리들을 앞장서 끌고갔습니다.

《뭐라구?!》

그제야 엄지오리는 새끼오리들이 알에서 까난 이틀기간에 엄지오리의 모습을 익히지 못하면 그 누구의 뒤든지 엄지로 알고 따라다님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내 새끼들한테 엄지로 보이려고 저 여우놈이 잔꾀를 부린줄 모르고 오히려 착한 여우로 생각했으니…》

세상에 착한 여우란 없음을 깊이깊이 깨달은 엄지오리는 이웃들과 함께 교활한 여우놈을 쫓아버리고 귀여운 새끼들을 되찾았습니다.

일이라면 죽어라 싫어하면서도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다않고 마실
건달군 꿀꿀이
어느날 동구밖 느티나무 보고
무릎을 쳤네

(허, 이제야
 공짜가 생길 구멍을 찾았구나
 개인날이면 그늘값 받고
 비오는 날이면 비긋는 값 받아야지)
꿀꿀이 기분좋게
느티나무에 표쪽을 달았네
《느티나무주인 꿀꿀이》

하지만 바쁜 농사철에

그 누가 한가히 나들이 다니랴
기다림에 맥빠진 꿀꿀이
하늘만 바라보며 푸념질했네
《에ㅡ하늘에서 호박이나 공짜로
  한광주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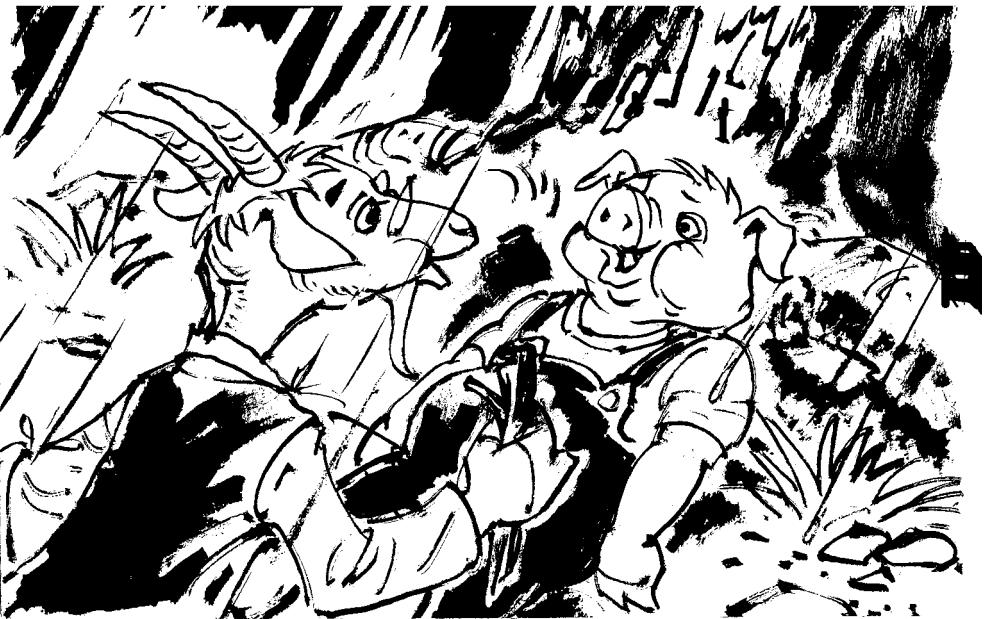
그 말 듣고
약초밭을 가꾸던 뿔염소 타일렀네
《임자 공들이지 않고 따는 열매가
  어디 있다던가
  허황한 생각일랑 그만두고
  이제라도 호박굴을 만들게》

꿀꿀이 그런 소리 귀등에도 안 들리는듯
이번에는 멍멍이가 잡은 물고기 보고
군침 꿀꺽 삼켰네

《에—하늘에서 물고기나 공짜로
한다래끼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에 멍멍이 말했다네
《여보게 세상에 절로 되는 일은 없다네
자네도 뼈심을 들여
양어장을 만들고 물고기를 기르라구》

하지만 멍멍이의 핀잔도 꿈만해
저 혼자 느티나무밑에서 딩굴다가
잠이 든 꿀꿀이
볼따귀가 선뜩하여 두눈 번쩍 떴네
쏟아지는 비줄기 보며 손벽쳤네
(아차 비긋는 값이라도 받아야지)

꿀꿀이 누가 오지 않나 사방을 살필적에
갑자기
《짜르릉—쾅》
꿀꿀이 그만에야
깩 까무라치고말았네

약초밭 물도랑째던 뿔염소
급히 달려와 손발 주물러주자
한참만에 눈을 뜬 꿀꿀이
주위를 살피며 간신히 하는 말
《여보게 내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누가 여기서 비를 긋고 간이가 없나?
혹시 비그은 값을 두고 간게 없는지
잘 알아봐주게》

그 말에 뿔염소 너무도 어이없어
숯검댕이된 느티나무가지
꿀꿀이 손에 쥐여주며 말했네
《옛네 하늘에서 벼락이
공짜로 떨어졌다네》

충고를 주지 않은탓에

어느 한 마을에 말과 하늘소가 서로 이웃하고 친하게 살았습니다.

말은 하늘소보다 체통이 컸지만 늘 하늘소를 어렵게 대했습니다.

한것은 하늘소가 말한테 훈시하기를 저희들은 말의 조상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기때문이였습니다.

어느날 번쩍번쩍 금은붙이며 울긋불긋한 구슬꿰미들로 요란하게 몸치장을 하고 목에는 금방울까지 단 하늘소가 말한테 수작을 걸었습니다.

《이보라구, 조카.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늘의 옥황상제나 바다의 룡왕도 나보다는 못할테지?》

하늘소는 한창 우쭐렁거리고나서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자넨 나보다 체통도 크고 힘도 세지만 영 꼴불견이야. 기껏해서 이마에 놋장식이나 하고 목엔 보기에도 끔찍한 멍에를 쓰구…》

말은 하늘소의 비웃음에 기분이 언짢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소가 걸멋이 단단히 들었군. 그러다가 경을 치겠는걸. 충고를 줄가? 에라, 가까운 사이에 서로 감정이 상할 필요가 없지.)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소는 자기 위엄을 더 뽐내며 턱을 쳐들었습니다.

《이 금방울 하나만 봐도 값이 굉장히 비싼것이라네. 내가 방울소리를 왈랑절랑 내며 갈 때에는 길가던 사람들도 모두 비켜선단 말이야.》

《그것참, 대단하군.》

말은 큰 머리를 끄덕여주었습니다.

(맞장구를 쳐주는게 상책이야. 그까짓 품드는 일도 아닌데…)

어느날 말과 하늘소는 고개너머 장보러 함께 가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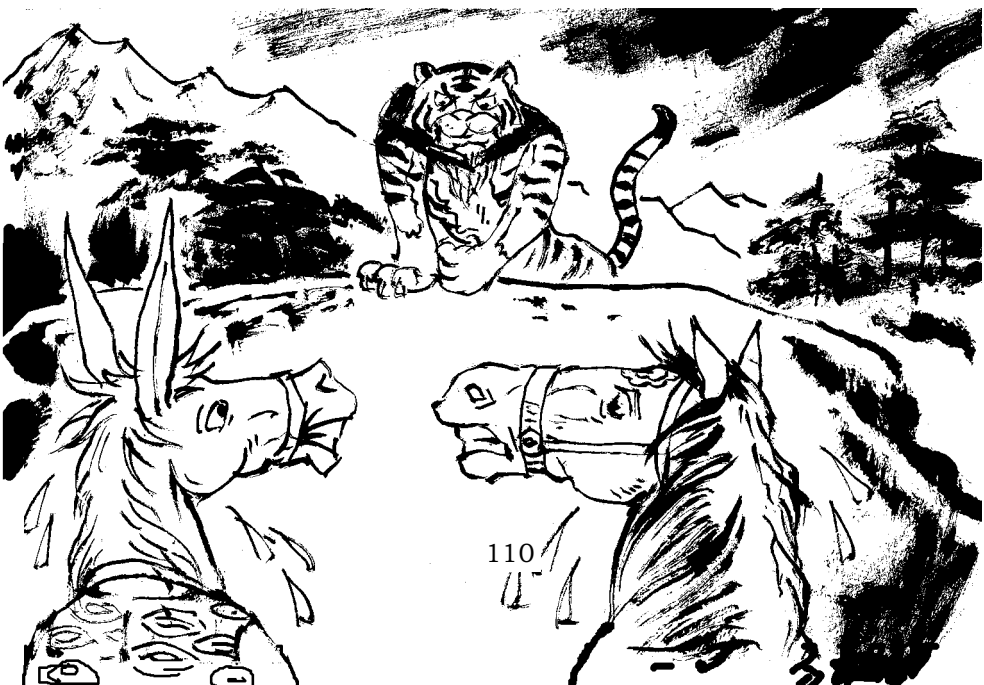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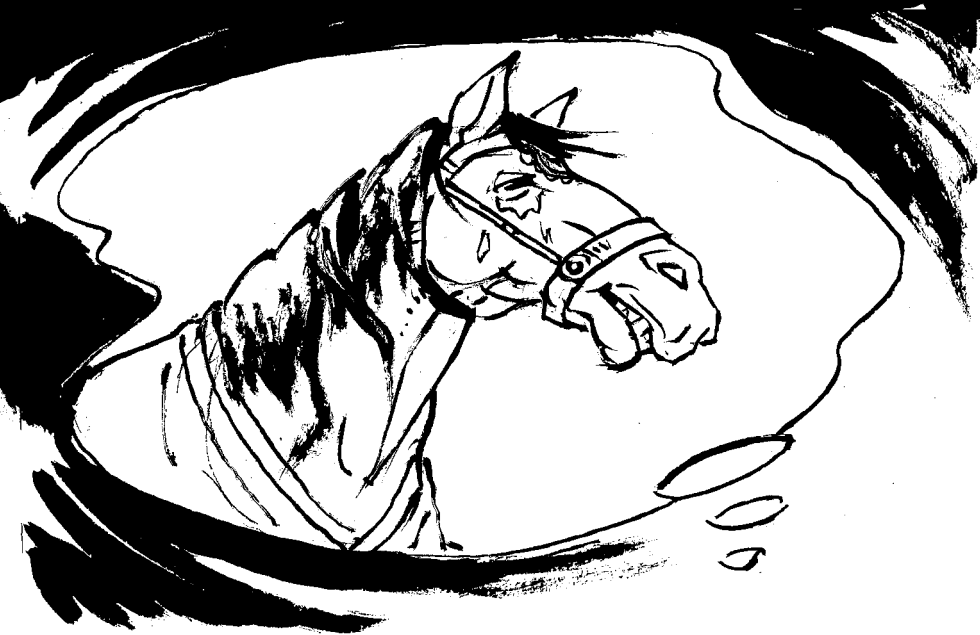
그런데 그 고개엔 범이 자꾸 나타나군 하였습니다.

말은 장한듯이 방울소리를 왈랑절랑 내며 앞장서걷는 하늘소를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저 방울소리를 듣고 범이 달려오지 않을가? 아니야, 괜히 달려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충고를 주었다가 잔소리군이라는 소릴 들을 필요야 없지.)

말이 이런 생각을 하며 고개마루에 올라섰을 때 정말 황소만 한 범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으흥—》

말은 급히 길옆의 숲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소도 말의 뒤를 따랐습니다. 방울소리를 왈랑절랑 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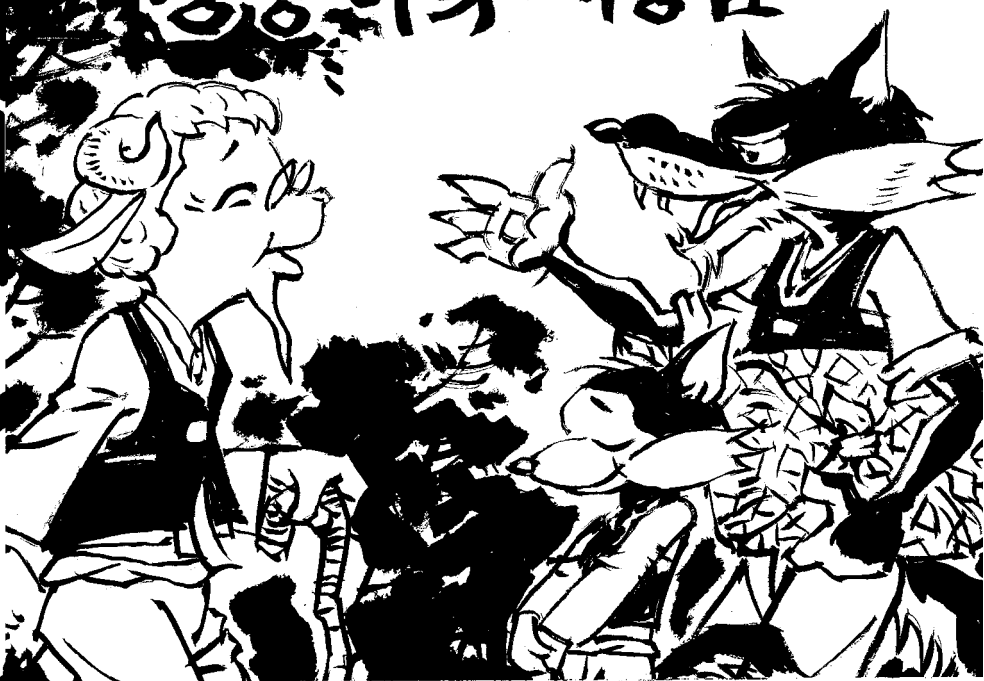
(챠, 이런)

말은 자기뒤를 헐레벌떡 따라오는 하늘소를 야속하게 돌아다보며 울상이 되였습니다.

범은 하늘소와 말을 둘다 덮치고야말았습니다.

《히히, 잠든걸 깨워주면서까지 나한테 먹이감이 찾아오다니…》

범의 너털웃음에 말은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가까운 사이라고 하여 잘못된것을 보고도 충고를 주지 않았더니 결국 나까지 화를 당하게 됐구나.》

늙은 승냥이가
경각성높은 양들을 눅잦히고
기회를 봐 덮칠 궁냥으로
례장감보따리 들고
양동산 찾아갔네

《양님네들!
  죄많은 우리 족속들 부디 용서하시고
  서로 화친을 맺읍시다》
늙은 승냥이의 말에 양들
어리둥절—
《어떻게 화친을 맺는단 말야?》

《사돈을 맺자는거웨다
 우리 새끼와 당신 새끼를
 짝무어
 다시는 물고뜯는 일없이…
 자 받으시오 례장감을!》

늙은 승냥이 보따리 풀어헤치자
번들거리는 옷감들 흘러나왔네
값진 노리개와 고급화장품들
노란 금방울까지 내보였네

《그참, 성의있게 준비했군
 그런데 제일 중요한 두가지가
 빠졌소》
좌상양의 말에 늙은 승냥이
눈알 떼굴—

《두가지가?!…어서 말해주
그게 뭔지 두가지가 아니라
스무가지도 더 마련할수가 있소
서로 사둔만 맺는다면야…》

늙은 승냥이 당장이라도 달려가
빠진 례장감 구해올양
너스레를 떨자
좌상양 큰 집게 내놓으며
말했네
《뭐 수고스럽게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이 간단히 내놓을수
있는건데…

당신들 이발과 발톱이
우리가 요구하는 례장감이요》

《뭐 뭐…뭐라구?!
그…그것만은…아…안돼!》
늙은 승냥이와 새끼승냥이
눈알이 뒤집혀 허둥거릴 때
그 꼴 보고 좌상양 큰 뿔 휘둘러
꾸짖는 소리ㅡ

《흥, 이제보니 쬐쬐한것들이군
이놈들아! 똑똑히 알아두라
다시 이따위 례장감을 들고와
누구를 꾀여보려다간
이 례장감이 네놈들의
장례감이 되리라는걸!》

이웃간의 거래가 몹시 질긴 방울염소가 어느날 고개너머에 사는 황소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방울염소에게

급히 약을 만들 일이 생겨서 그러니 빌려갔던 약초책을 곧 보내주게. 그리고 요전날 자네에게 주려고 잎담배를 가지고 갔댔네. 집이 비여서 개울건너집 양아주머니한테 맡겨놨으니 피우게. 황소로부터.》

방울염소는 노란 눈을 감았다떴다하며 제편에서 성격을 살렸습니다.

(야, 체통이 아깝게 무던히도 보챈다. 아직 책을 다 보지 못했는데…)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던 방울염소는 잎담배라는 소리에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오는것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돌려주지 않고 잎담배만 찾아서 피울수 있을가 하고 궁냥을 하던 방울염소는 그럴듯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입가득 물고 들어온 방울염소는 편지에서 책을 돌려달라는 부분에만 푸―푸―뿌렸습니다.

순간에 글자들은 얼룩이 져 알아볼수 없게 되였습니다.

(됐다, 애당초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해야지. 이젠 양아주머니한테 맡겨둔 잎담배나 찾아 구수하게 피워보자.)

잎담배는 방울염소가 제일 좋아하는 독초였습니다.

《히야, 담배맛 좋다!》

목구멍이 깔깔해지도록 연방 줄담배를 피우고난 방울염소는 노근해져 낮잠까지 늘어지게 잤습니다.

며칠후 방울염소네 집에 황소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보낸 편지를 받지 못했나?》

격해진 황소의 물음에 방울염소는 애써 상냥스레 대답했습니다.

《받았지요. 형님덕분에 잎담배를 잘 피웠수다. 그런데 편지 웃부분은 무슨 글인지 알아볼수 없게 얼룩이 졌더구만요. 편지가 비에 맞았는지…우편통신원들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니까…》

방울염소는 얼룩이 진 편지를 황소한테 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황소는 큰 눈을 슴벅이며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불쑥 편지봉투를 찾았습니다.

《봉투요? 여기 있수다.》

황소에게 편지봉투를 내밀던 방울염소는 갑자기 손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실… 저…》

방울염소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라 턱만 달달 떨었습니다.

글쎄 편지봉투엔 얼룩이 진곳이 한곳도 없었던것입니다.

황소는 미리 짐작했었다는듯 뜨직뜨직 입을 열었습니다.

《난 이번에 산골로 부식토를 실으러 가던 길에 자네 병에 맞는 약초를 캐다가 약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자네가 어디 나타났어야 말이지. 그 못된놈의 비가 봉투는 안 적시고 그안의 편지장만 적신줄 모르고 그저 자네만 욕했군.》

순간 염소는 황소의 억센 발통에 뒤통수를 얻어맞은듯 정신이 멩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진정을 모르고…)

방울염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마음처럼 얼룩진 편지장만 내려다보고 또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중의 왕이라 우쭐대며
약한 짐승들을 제 마음대로 잡아먹는
호랑이한테
기분나쁜 소리 들려왔네
노루가 자기 동산을 지켜 죽기를 각오하고
호랑이와 맞서싸울 훈련을 한다는 소리

《뭐?! 그 겁쟁이가 죽기를 각오해?》
호랑이 어처구니없다는듯 코김 내불자
아첨쟁이 여우도 꼬리로 탕—
땅바닥 내리쳤네
《호랑이대왕님을 업수이 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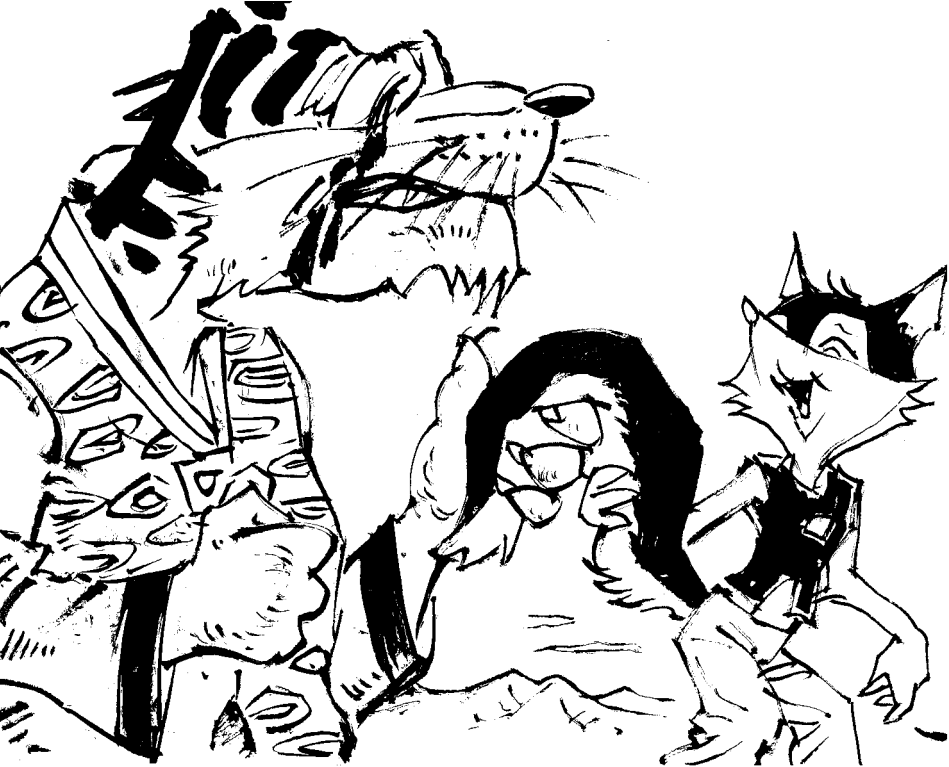
분수가 있지
노루따위가 다…》

그길로 노루동산으로 달려간 호랑이와 여우
산비탈 돌밭에서 노루를 만났네
《네 이놈, 내앞에서 한번 지껄여봐라》
호랑이 따웅ㅡ 소리치자
여우도 곁따라 목청 돋구었네
《제 방귀소리에도 놀라 뛰는 놈이
감히 누구와 맞서보겠다고…》

그 말에 노루
배심있게 하는 대답
《이젠 네놈들이나 놀라 뛰지 말아라》

《그럼 어디 그 맛 좀 보자》
순간 호랑이 땅을 차며
노루한테 덮쳐들었네
한입에 삼켜버릴 기세로

하지만 누구도 볼새없이 날아온
주먹같은 차돌들
호랑이의 두눈통 불이 번쩍 일게 답새겼네
이마빡도 단방에 빡—깨여놓았네
노루 그동안 익힌 뒤발차기솜씨로
씽— 씽— 돌벼락 안긴것이네

어흐응— 어이쿠—
두눈통 싸쥐고 쓰러진 호랑이

한참만에야 겨우 정신차리고
여우한테 하는 말
《허, 노루방귀가 이렇게 굳은줄은
  미처 몰랐구나》

그러자 여우 앞 못 보는 호랑이한테
제 꼬리 쥐여주며 재촉했네
《돌이 더 날아오기 전에
  어서 뺑소니칩시다요
  덮어놓고 남을 얕보다가는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는군요》

어느 곡식밭에 틀차리기 좋아하는 허수아비가 있었습니다. 허수아비는 잘 익은 곡식들을 새들이나 쥐들로부터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꺽두룩하게 서서 틀만 차리군 했습니다.

어느날 고추잠자리 한마리가 날아가다가 허수아비한테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허수아비아저씨, 안녕하세요?》

하지만 허수아비는 고추잠자리의 말을 못 들은체 고개를 잔뜩 외로 꼬고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무안해진 고추잠자리는 꼬리가 더 새빨개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가고말았습니다.

(별 쪼꼬만게 다 아는체를 하는군. 내가 아무렴 저따위들과 상대할텐가. 위신없게스리…)

허수아비가 장한듯 어깨를 으쓱이고있는데 곁에서 지게를 뻗치고있던 작시미가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수고하는군.》

《여보게라니? 이건 또 뭐야?》

허수아비가 낯을 찡그리며 내려다보자 작시미가 어줍게 웃으며 마주올려다보는것이였습니다.

《날세, 자네와 난 한아카시아나무뿌리에서 자란 쌍가지가 아닌가. 자네 그래 날 모르겠나?》

그러자 허수아비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난 그런 친구를 모르네. 그러니 말조심하라구. 친구니, 여보게니 하면서 남의 체면을 깎지 말구.》

억이 막힌 작시미가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이번엔 선들바람이 허수아비한테 말했습니다.

《허수아비야, 잔뜩 머리를 쳐들고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아래도 살펴라. 쥐란 놈들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 이삭들을 쏠아먹는다.》

선들바람의 충고에 허수아비는 볼이 부어 투덜댔습니다.

《허참, 한갖 바람인 주제에 누굴 보고 이래라저래라 하는거야? 싱거운 간참일랑 말고 어서 제 갈대로나 가. 난 적어도 주인의 모자를 쓰고 옷을 입은 작은 주인이란 말이야.》

그 말에 선들바람은 쓰겁게 웃고나서 갑자기 돌개바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윙—

돌개바람은 순간에 허수아비가 입었던 저고리와 모자를 벗겨 허공중에 뿌려던지고말았습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알몸뚱이가 된 허수아비는 삐죽이 땅에 박혀가지고 거북하게 서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작시미가 물었습니다.

《이젠 널 어떻게 불러야 하니?》

음흉하기짝이 없는 승냥이 한마리가 어느 나무밑을 지날 때였습니다.

객—객— 하는 다급한 소리가 나무우에서 들려왔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독수리가 두루미둥지에 덮쳐드는것이였습니다.

둥지속의 알을 노리고 덤벼드는게 틀림없었습니다.

(야, 나도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군침을 흘리며 바라보던 승냥이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발뒤축을 쾅— 내리찍었습니다.

(그렇지!)

승냥이는 발밑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들어 독수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에끼, 이 못된 날강도놈아. 아직 세상빛도 보지 못한 두루미알들을 먹겠다고? 너도 알을 깨워 기르는 놈이냐?》

승냥이가 연방 돌을 던지는 바람에 독수리는 할수없이 딴곳으로 날아가고말았습니다.

《승냥이님, 고마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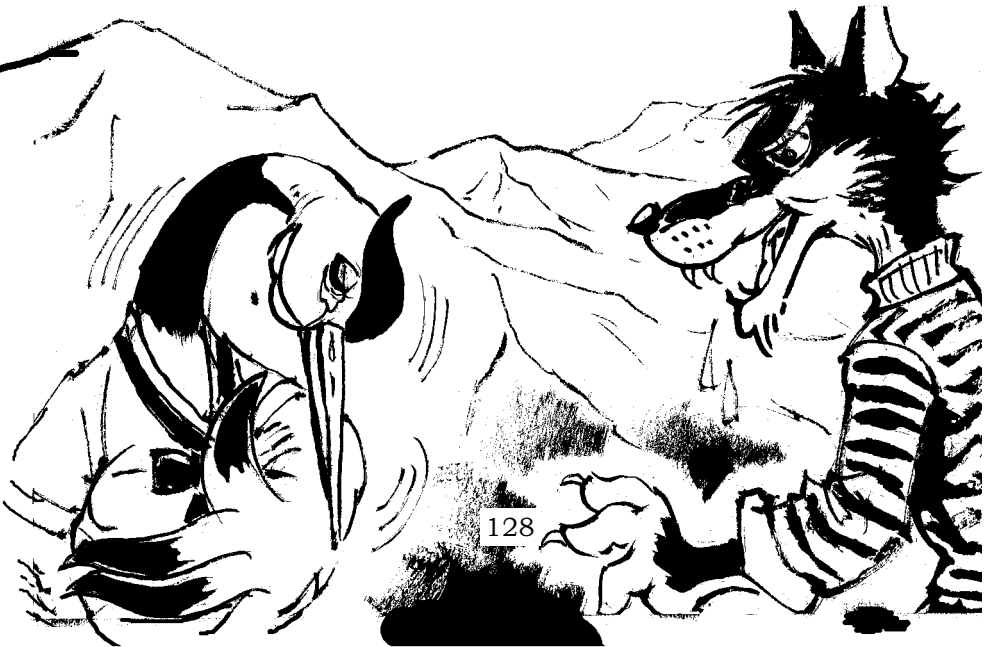
두루미는 눈물을 흘리며 승냥이에게 긴 목을 숙였습니다.

《원, 무슨 말씀을… 나도 이전에는 저 독수리처럼 남을 해치는 못된짓을 골라했지만 지금 와선 깊이 뉘우치고 있다네.》

《그래요?!》

두루미가 안심하는 눈길을 보내자 승냥이는 어줍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남들의 흥을 돋구는 그네뛰기를 좀 배울가 하고 떠난 길인데… 허참, 이 승냥이한테 누가 배워주겠다질 않는군. 다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아온탓이지, 흑흑…》

승냥이가 눈굽을 닦는척 하자 두루미는 몹시 감동되여 어디론가 씽—날아갔다오더니 칡넝쿨로 꼬아만든 바줄을 가지고왔습니다.

《내가 그네뛰는 법을 배워드리지요.》

두루미는 나무가지에 칡바줄을 드리웠습니다.

《이런 고마울데라구야…》

승냥이는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자, 다리엔 힘을 주고 배와 가슴을 내밀며 하나, 둘, 셋.》

두루미는 승냥이에게 그네뛰는 법을 배워주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승냥이는 제법 하늘공중 날아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두루미둥지도 손에 잡힐듯 하였습니다.

(이젠 됐다. 우선 네놈부터 잡아먹고 그다음 둥지의 알들을 한알씩 꼴깍꼴깍…)

승냥이는 흉심을 감추며 두루미한테 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두루미부인, 저한테 쌍그네 타는 법도 좀 배워주시우.》

《쌍그네요? 좋아요.》

두루미는 승냥이와 그네에 마주섰습니다.

(이거 정말 멋있는데…승냥이와 두루미의 쌍그네라…)

승냥이는 어깨까지 으쓱이며 두루미와 쌍그네를 뛰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공중에서 바줄을 쥐였던 한손을 놓으며 두루미를 와락 덮치였습니다.

《요놈―》

순간 힘이 한쪽으로 쏠리며 그네가 팽그르 돌아갔습니다.

《캑―》놀란 두루미는 목을 움켜쥔 승냥이의 손을 뿌리치며 하늘에 날아오르고 승냥이는 그만에야 땅바닥에 곤두박혔습니다.

《아이쿠, 허리야. 아이쿠, 다리야. 난… 사실 눈앞이 아찔하여 구원의 손을 뻗쳤던것인데…》

《흥, 잘도 둘러치는군. 구원의 손길을 뻗친다는것이 남의 목을 움켜잡고 또 〈요놈〉이라는 존칭어도 쓰는군. 그래도 뭐 뉘우친 승냥이라구?》

두루미는 그네줄을 풀어 너부러져있는 승냥이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옆에 구뎅이를 파고 승냥이를 밀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너같은 놈과 쌍그네를 탔던 나도 바보였지. 흉악한 네놈은 그네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게 아니라 땅속으로 가야 해.》

어느 산속에서
호랑이덕에 배를 불리는 시라소니
날마다 벼라별 아첨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호랑이꼬리까지 칭찬했네

《호랑이형님의 꼬리는
볼수록 위엄있고 훌륭하오이다
그런데 내 꼬리는
짧고 볼품도 없으니…》

어느날
벼랑밑을 지나던 호랑이와 시라소니

뜻밖에도 우당탕! 돌사태 만났네
호랑이꼬리 그만 큰 바위밑에 깔렸네

《시라소니야, 어서
  이 바위를 좀 들어다오》
호랑이의 다급한 청에 시라소니
바위돌이 또 굴러떨어질것만 같아
뒤걸음쳤네

《어서 꼬리를 끊어버리시오이다
  그까짓 꼬리때문에 몸을 상하겠소이까》
《그럼 꼬리없는 호랑이가
  되란 말이냐? 괘씸한 놈!》

그 말에 시라소니 코웃음쳤네
《흥 그렇게 위엄이나 뽐내며 긴 꼬리를
　달고다니는것은
　참으로 우둔하고 어리석은 일
　나처럼 짧고 뭉툭한 꼬리라면
　이런 봉변도 당하지 않았을걸…》

《뭐라구?!》
순간에 호랑이 노기가 오른김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네
그통에 호랑이꼬리 뽑혀져나왔네

이것을 본 시라소니
다시 호랑이한테 달려가 꼬리를 흔들었네

《저… 저… 대왕님의 꼬리는
역시 다르오이다
설사 산밑에 깔렸다 해도
제꺽 뽑혀져나오는 용맹스런 꼬리오이다》

그 역겨운 추태앞에 호랑이
무쇠통같은 앞발을 높이 들어
시라소니를 내리치며 말했네

《어서 썩 없어져라
좋을 때는 발라맞추고
어려울 때는 뒤걸음치는
너같은 배신자와는 함께 살수 없다》

제집 담장을 뚫게 한 꿀꿀이

어느 한 마을에 꿀꿀이네와 꼬꼬닭네가 이웃하고 살았습니다.

꼬꼬닭네는 여우놈이 기여들어오지 못하게 집둘레를 가시울타리로 빙 둘러막았지만 꿀꿀이네 집과 잇닿은 곳만은 가시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렴, 이 꿀꿀이도 믿지 못하겠나?》

꿀꿀이는 늘 이렇게 말하군 하였습니다.

어느날 담장에 회칠을 하던 꿀꿀이는 뒤담장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 누구요?》

꿀꿀이가 담장우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다보니 여우 한 마리가 마주쳐다보는것이였습니다.

《아니, 네놈이?!》

꿀꿀이가 손에 쥔 회솔막대기로 내리치려 하자 여우는 얼른 큼직한 보꾸레미를 내밀었습니다.

《저, 이걸…》

《그게 뭐야?》

꿀꿀이가 한결 느슨해진 목소리로 묻자 여우는 순한척 목소리를 죽여 대답했습니다.

《집에 꿀호박이 생겼더라니… 아다싶이 우린 이런걸 좋아하지 않기에…》

군침 꿀꺽 삼킨 꿀꿀이는 담장안팎을 휘둘러보고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뒤담장으로 와서 이런걸 주는거야?》

《거야 뭐…지난날 평판이 좋지 못한 나때문에 꿀꿀이형님의 낯이 깎일가봐. …하지만 마음놓으세요. 전 이젠 남한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살기로 맹세한 여우니까요.》
여우의 그럴듯한 말에 꿀꿀이는 여우가 올리받쳐주는 꿀호박을 받아 게걸스레 먹었습니다.
이튿날 여우가 뚝감자바구니를 안고 뒤담장밑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하, 이러면 안되겠는데…》
꿀꿀이는 손을 내저으면서도 입귀는 벙글거렸습니다.
《뭘 그러세요.》
여우는 벌써 친구지간이나 된것처럼 아양을 떨었습니다.
꿀꿀이는 마지못하는척 이번에도 뚝감자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그러기를 몇번…

어느날 탁배기단지까지 안고온 여우앞에서 꿀꿀이가 뒤더수기를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 이 신셀 무엇으로 갚는다?》

그러자 이때라고 생각한 여우가 제꺽 입을 열었습니다.

《신세는 무슨…그저 꿀꿀이형님네 이 뒤담장밑에 조그마한 구멍이나 하나 내게 해주세요.》

《뭐, 구멍을?》

꿀꿀이가 깜짝 놀라자 여우는 안심하라는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왜 그리 놀라세요? 난 그저 형님네 앞집 꼬꼬닭을 조용히 만나보고싶어서 그래요.》

《꼬꼬닭을?…》

꿀꿀이는 속이 께름직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전번날 지붕에 불이 났을 때 꼬꼬닭신세를 졌는데… 에라, 그땐 그때구 지금은 여우가 더 살틀하게 구니…혹시 꼬꼬닭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꺽 달려가보면 되는거지.)

꿀꿀이는 여우한테 자기 집 담장구멍을 통해 들어왔다는 소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나서 담장밑에 구멍을 뚫도록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꿀꿀이가 승낙한것보다 더 큰 구멍을 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구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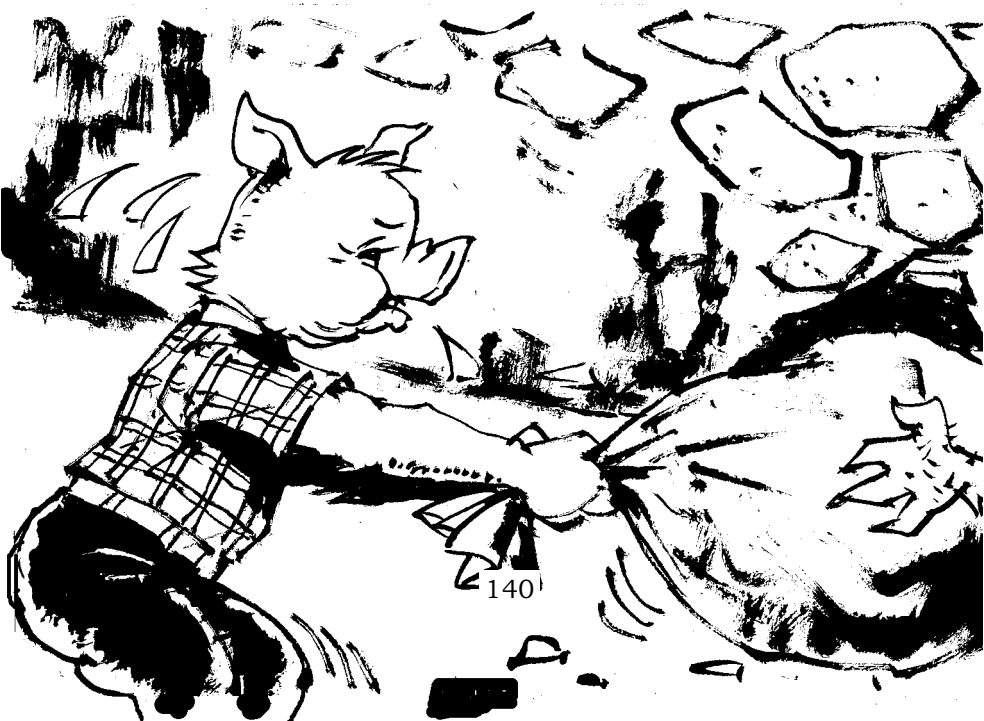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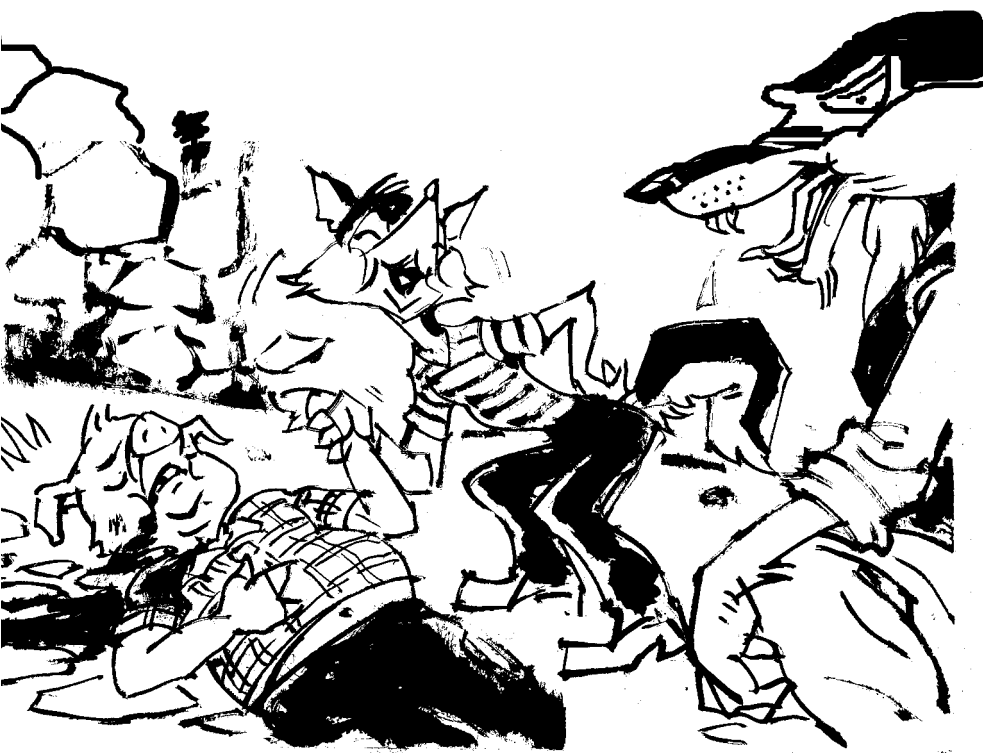
《오늘 저녁에 형님진지상에 올릴 음식감자루를 끌고 오려면 이 구멍도 작지요.》

(또 무슨 맛좋은걸 가져오려나?)

꿀꿀이는 여우가 하겠다는대로 내버려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여우는 뚫어놓은 담장구멍으로 정말 큼직한 자루를 들이밀었습니다.

《자 형님, 좀 잡아주어요.》

꿀꿀이는 비지땀을 흘리며 자루를 잡아당기다가 쾅 하고 자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자루아구리가 풀어지면서 그속에서 승냥이가 달려나왔습니다.

꽥—

꿀꿀이는 하늘땅이 울리게 소래기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비명이였습니다.

승냥이가 꿀꿀이의 멱살을 물어메쳤던것입니다.

《헹, 꿀호박과 뚝감자가 공짜인줄 알았어? 내가 담장구멍으로 승냥이형님을 모시고와서 네놈부터 잡아먹을줄 몰랐지.》

여우의 씨벌임에 꿀꿀이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제 혼자 잘살 생각만 하며 이웃들까지 배반했던 꿀꿀이는 이미 숨지고말았으니까요.

긴 목과 짧은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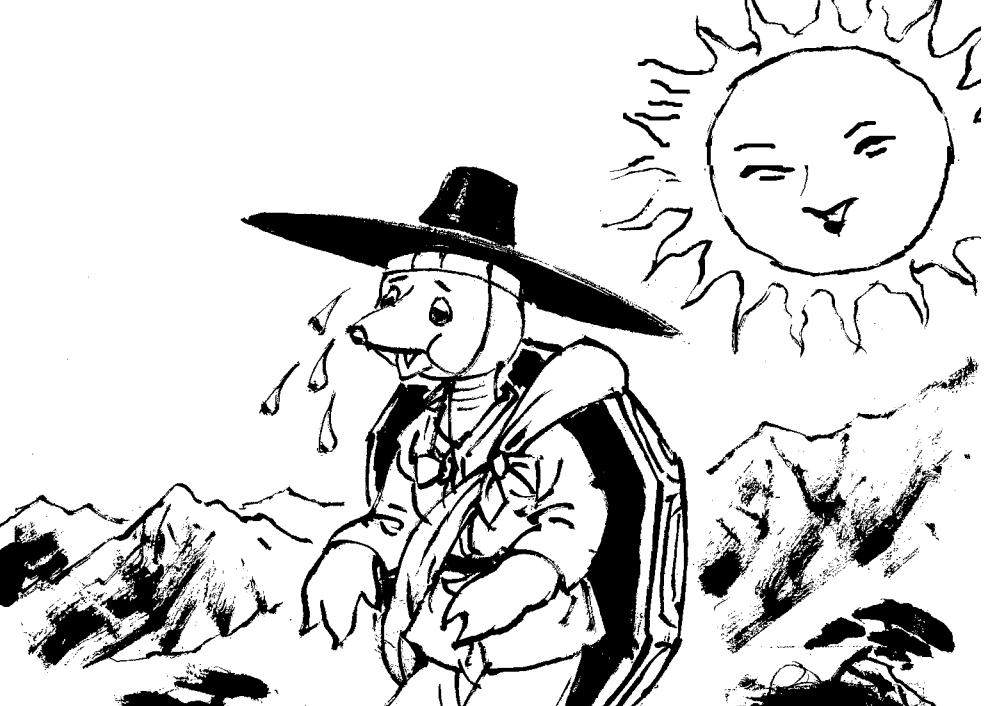
무슨 일에서나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자라 한마리
솔골에 산다는 청서의원을 찾아가던중
뒤따라오는
오소리와 메돼지의 말을 엿들었네

《내 원참 목 긴것들 노는 꼴 보면
  입이 쓰거워서
  머루골의 사슴이나 노루를 좀 보게
  마치 저희들만 유식한체》

《그러게 말이지 토끼꼬리만큼
  아는것 가지고 긴 목 뽑으며
  제노라 으시대니…》

그 말 들은 자라
뽑았던 목 얼른 움츠렸네
(저들이 내 목 보고
 길다 하면 어쩐다?
 저들한테 솔골로 가는 길
 물어보자던 참인데)

이때 앞쪽에서 뜻밖에도
마주오는 머루골의 사슴과 노루
저들끼리 수군수군…
《저 목받은 친구를 좀 봐
  얼마나 답답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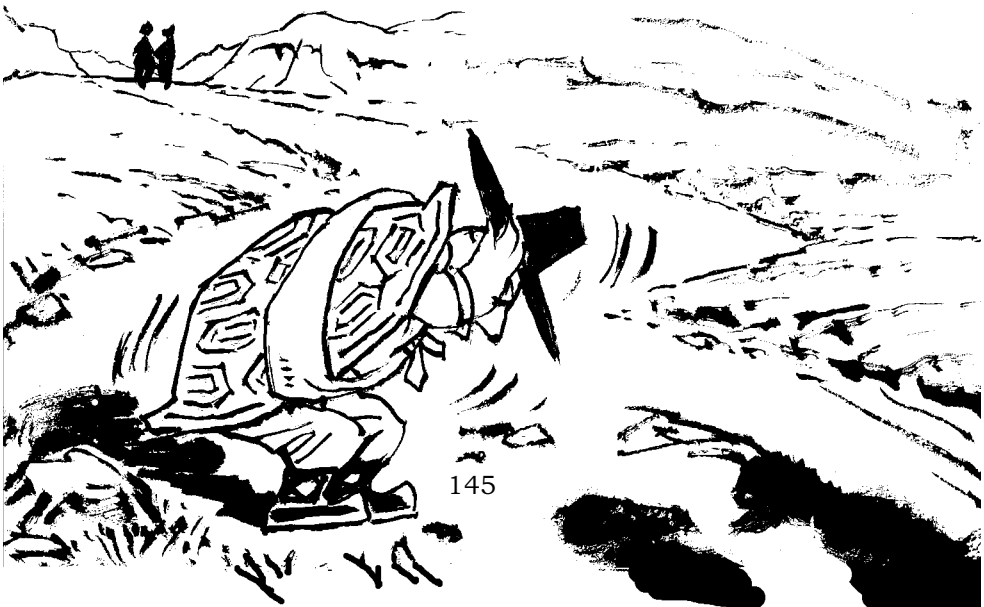
《예로부터 목 받은것들과는
  상대를 말랬어
  우리 못 본척 하세》

그 말을 들은 자라
움츠렸던 목 얼마간 다시 뽑았네
(저들이 날보고 답답하다면
 어쩐담
 내가 가는 방향을
 저들은 이미 지나왔으니
 저들이 솔골을 더 잘 알텐데)

누구한테 물어보며 잘 보여야 할지
결심을 못 내린 자라
긴 목이 되였다 짧은 목이 되였다
짧은 목이 되였다 긴 목이 되였다
어느덧 메돼지와 오소리
사슴과 노루가 어기치는데

아직도 목을 뽑았다움츠렸다하는
자라보고 그들은 가던 길 멈추었네
《넌 왜 그러고 섰느냐?》
《저…》
대답을 못하고 이쪽저쪽 바라보며
목춤추는 자라보고 하나같이 말했네

《저 자라한텐
　목에 뼈대가 없는 모양이야
　목건사도 못하는걸 보니》

비웃음에 모두 제 갈길 가버리자
뒤늦게야 땅을 치며 자라는 통곡했네

《어휴! 목에 뼈대가 없는 놈!
　제 주견 없으니
　가는 길 묻는건 고사하고
　동네웃음거리만 됐구나》

어느날 밤.

늙은 승냥이가 느티나무밑에 상을 차려놓고 달을 바라보며 빌었습니다.

《밤의 재판관이신 보름달님, 그 밝은빛으로 우리 승냥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굽어살펴주사이다.》

《무슨 일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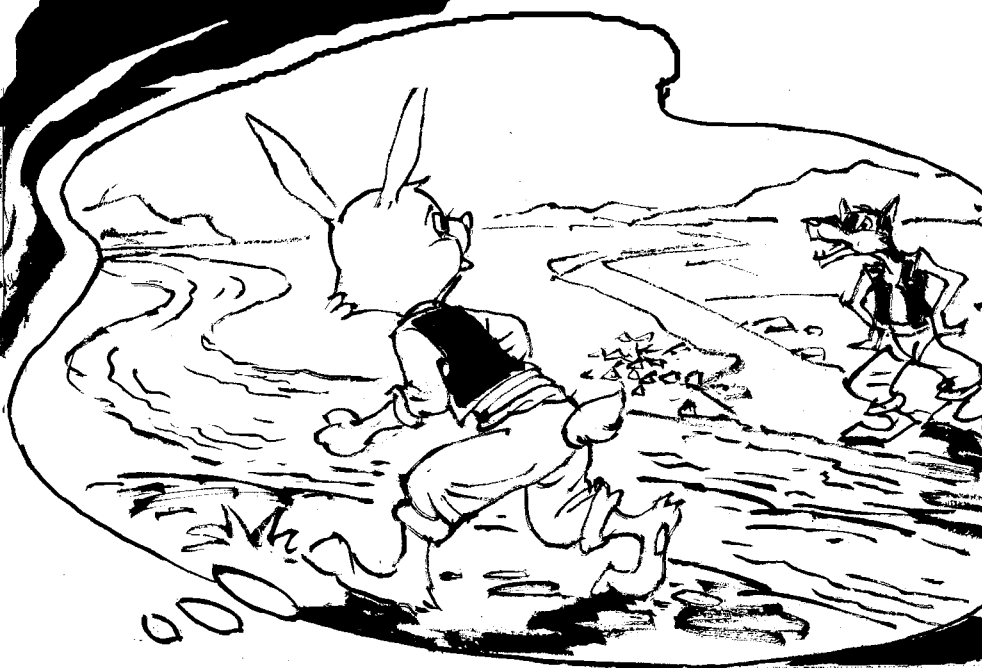
달이 점잖게 물었습니다.

《아, 글쎄 밤골에 사는 다람쥐란 놈들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하옵니다.》

《어떤 무기인데?》

달은 흥미있는듯 다시 물었습니다.

《고 쬐꼬만 놈들이 골은 뱅뱅 돌아서 밤송이를 따다 밤알은 모두 창고에 넣고 가시가 삐죽삐죽한 껍질로는 돌멩이들을 감싸 가시수류탄들을 만들었다고 하옵니다.》

《그게 너희 승냥이들한테 억울한 일로 된단 말이냐?》
달은 어처구니가 없어 승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구요. 그놈들때문에 이젠 밤동산에도 마음대로 못 가게 됐으니… 밤철이면 덤불속에 숨었다가 밤따러오는 놈들을 덮치군 하였는데…》
승냥이는 달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허리까지 연방 굽석했습니다.
《그래, 너희 승냥이들의 억울한 일이란 그것뿐이냐?》
《아니옵니다. 또 있사옵니다. 토끼란 놈들이 신기한 약을 만들어냈다고 하옵니다.》
《어떤 약인데?》
달은 여전히 하늘길을 가며 승냥이한테 물었습니다.
《토끼란 놈이 약초에는 귀신이여서 글쎄 어떤 약초로 약을 만들었는지 그걸 한알 먹으면 다리에 힘이 뻗쳐 웬간한 강이나 개울들은 훌쩍훌쩍 날아넘게 된다고 하옵니다.》

《그런데 그 약이 너희 승냥이들한테 무슨 억울한 일로 되느냐?》

《달님…》

승냥이는 답답하다는듯 달을 치떠보았습니다.

《토끼놈이 만든 그 약을 먹은 놈들이 강가에서 물을 마시다가도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훌쩍훌쩍 강을 뛰여넘으니 닭쫓던 개신세가 된 우리 꼴이 억울하지 않단 말이오이까?》

《흠―》

달은 차겁게 또 물었습니다.

《이젠 억울한 일을 다 말했느냐?》

《한가지 더 있소이다.》

《뭐냐?》

《다람이나 토끼 그리고 오소리, 너구리 등 보잘것 없는것들이 서로 밀려다니며 친하게 지내는것이옵니다.》

《그들이 친하게 지내는것도 너의 억울한 일로 된단 말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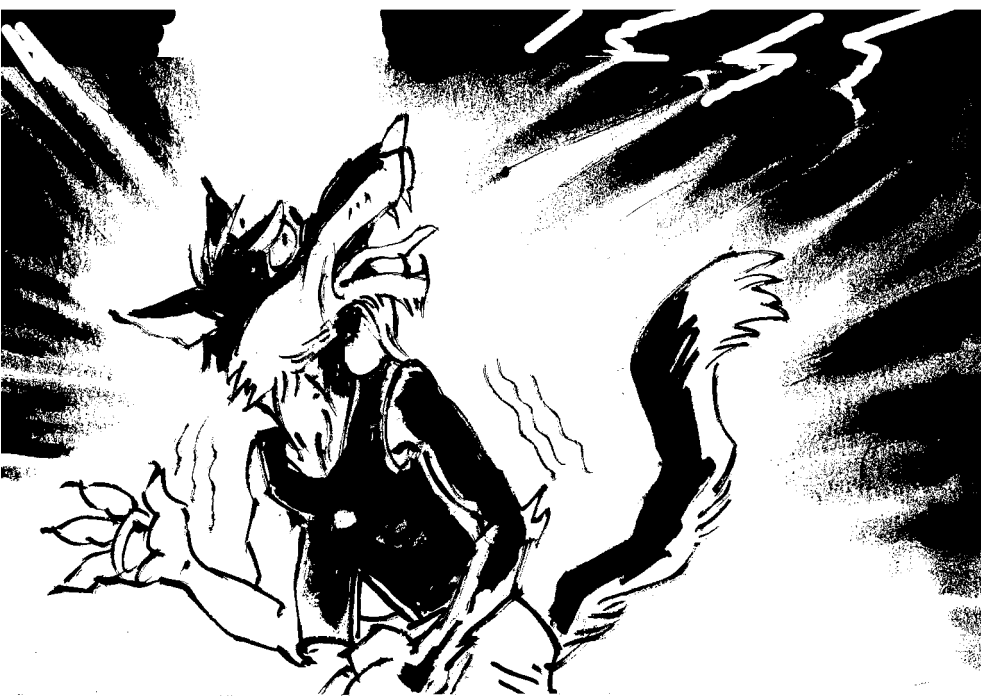
달은 노기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놈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 단합하게 될것이고 그놈들이 한데 뭉치면 우리가 마음대로 잡아먹을수 없으니 이 아니 억울한 일이오니까.》

《그럼 너희들의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느냐?》

달의 물음을 기다리기나 한듯 승냥이는 제꺽 대답했습니다.

《그놈들의 무기와 약을 모두 빼앗고 그놈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달은 아무 대답도 없이 먹장구름과 번개, 우뢰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젠 네가 다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마.》

달이 말했습니다.

(아무렴, 달님이 어련할라구.)

승냥이가 제잡담 이렇게 생각하며 느티나무밑에 바싹 붙었는데 짜르릉 쾅— 벼락이 내려치며 느티나무와 함께 승냥이를 숯검댕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참만에 다시 나타난 달이 느티나무밑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을 해치느라 피눈이 된 네놈에게 무슨 일인들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젠 네놈이 더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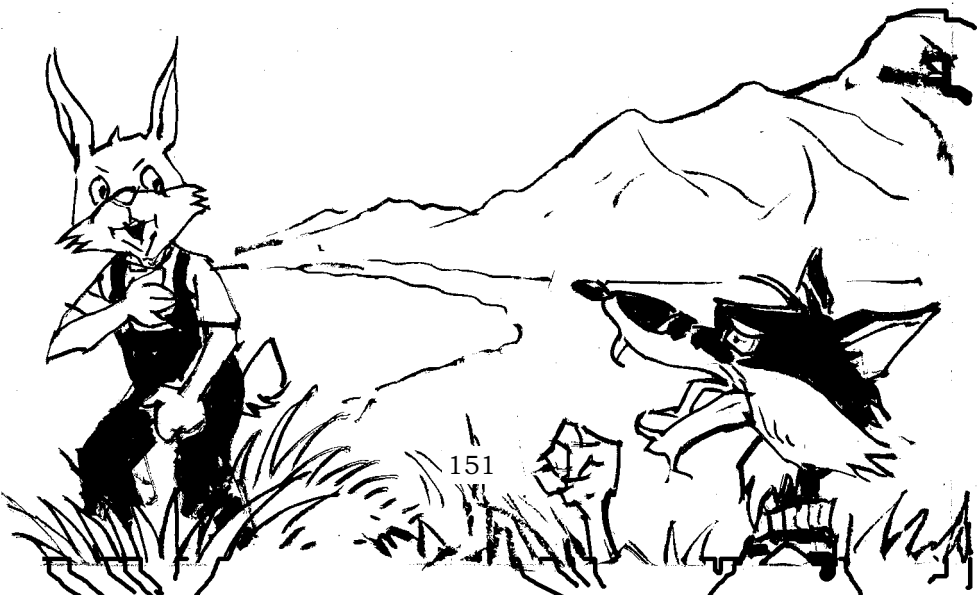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으러 쫓아가다가 그만 늪에 빠졌습니다. 늑대는 다리가 감탕에 빠져 움직일수 없는데도 큰소리를 쳤습니다.

《토끼 요놈, 당장 나를 끌어내지 못할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이제 늪에서 나가 네놈은 물론 네놈의 새끼들까지 모조리 와작와작 잡아먹을테다.》

몸이 가벼운 덕에 늪에 빠지지 않은 토끼는 풀덩굴속에서 대답하였습니다.

《나한텐 새끼가 없는데두요.》

《이제 낳겠지. 네놈들이 한달에 한번씩 새끼를 낳는 족속들이라는걸 내 모를줄 알구?》

늑대는 큰소리로 호통치는 바람에 네다리만 빠졌던것이 몸뚱이까지 감탕에 들어갔습니다.

그 꼴을 보며 토끼는 빨간 눈을 또록또록 굴렸습니다.

《난 수토끼인데요.》

《뭐, 수토끼! 그럼 네놈의 암토끼까지 잡아먹을테다.》

늑대가 더 큰 소리를 치자 이번엔 모가지까지 진펄에 빠졌습니다.

《난 아직 결혼전인데요.》

토끼는 큰 귀를 발쭉거리였습니다. 늑대가 무슨 소리를 더 하는가 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꼬르륵 꼴깍 감탕속에 꼭뒤까지 빠지면서도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럼 네놈이 장가갈 때까지 이 늪에서 기다리겠다.》

그림책 **벗과 디딤돌**

글 **문영철** 그 림 **강상준, 권영훈**
편 집 **류인호** 편성 **최순근** 교정 **김경희**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2
인 쇄 주체100(2011)년 5월 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5월 10일

ㄱ－16150 값 80 원

ISBN 978－9946－22－425－1